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가장 없는 말씀을 바로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10월 8일 (토) 제 160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러시아, 서방종교 선교활동 대대적 단속

뉴스위크, 테러방지 명분 “등록 장소에서만 신앙 공유할 수 있다” 전격 시행 보도

최근 어느 주일 아침 미국인 침례교 전도사 도널드 오세와르데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360km 떨어진 작은 도시 오홀의 자택에서 10여 명의 신자들과 함께 비공식적인 성경공부 모임을 가졌다. 대다수는 지난 수년 동안 오세와르데가 매주 집에서 가진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었다. 늘 그랬듯이 그들은 1시간 동안의 찬송과 기도, 성경 내용 토론을 기대했다. 그러나 모임이 시작되자 경찰관 3명이 그 자리에 들어왔다. 그들은 신자들 뒤에서 잠자코 기다렸다가 성경공부가 끝나자 참석자 전원을 심문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오세와르데와 아내 루스를 연행했다. 경찰은 주인이 오세와르데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 여성은 ‘외래 종교의 관심자’들이 오홀에서 버젓이 활동한다는 사실에 격분했다고 경찰은 오세와르데에게 전했다. 오세와르데가 체포된 지 몇 시간 만에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그

에게 불법 선교활동을 한 죄로 4만루블(약7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02년부터 오홀에서 거주해 러시아어가 유창한 오세와르데로선 자신이 받은 유죄 판결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는 “수년 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거리에서 성경과 관련된 전단지 나눠주고 행인과 기독교에 관해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행인도 있었고 우리 믿음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도 있었다.” 뉴스위크는 소위 테러와 반극단주의를 제어하기 위해, 이미 러시아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는 복음주의 교회들이나 서방 종교단체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하루아침에 얼어붙을 정도로 냉각된 현지 분위기를 생생하게 보도한다(A NEW RUSSIAN LAW TARGETS EVANGELICALS AND OTHER ‘FOREIGN’ RELIGIONS).

러시아정교회 제외...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들 환영

이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선교 활동과 전도를 금하는 새 법에 서명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국가에 등록된 장소에서만 다른 사람과 신앙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판자들은 ‘반극단주의·반테러’ 법 제정의 일환으로 통과된 그 법이 소련 붕괴 이후 도입한 새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새 헌법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신앙을 전파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그들은 말했다. 러시아 개신교연합의 세르게이 리야호프스키 회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 이렇게 썼다. ‘소련의 역사를 보면 다른 종교를 가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극심한 박해를 당했다. 새 법은 러시아를 그런 처옥스런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 현재 크렘린은 반서방 선전에 열을 올린다. 미국과 영국이 푸틴 대통령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주장부터 러시아는 미국을 ‘방사능의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능력을 갖췄다는 자랑까지 다양한 선전 공세가 계속된다. 지금까지 새 종교법의 파장은 소수에 속하는 ‘외래’ 종교의 신자들에게만 국한됐다.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모르몬교), 크리스나니식국제협회(힌



소수 종교에 적대적이며 크렘린을 지지하는 러시아정교회는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새 법에 대한 비판을 일축한다.

두교의 종파), 여호와의증인, 침례교·오순절교·안식교에 뿌리를 둔 개신교가 그 대상이다. 이런 종교의 신자들은 예배당 허가가 나오지 않아 신자의 자택에서 비공식적으로 예배를 볼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소수 종교에 적대적이며 크렘린을 지지하는 러시아정교회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러시아 국민의 70%가 스스로를 정교회 신자라고 말한다. (3면으로 계속)

확신 가진 크리스천은 신앙 떠나지 않는다!

CT, 최근 여론조사 결과 “크리스천 감소”에 대한 반론 사실 논증 게재(3)

3가지 핵심적인 경향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이제는 주류 교단이 아닌 복음주의 교회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외에, 미국 종교 지형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3가지 핵심 경향들이 있다.

1. 무교단 교회들의 증가

교단이 없는 교회들의 성장은 미국 종교정보에서 종종 간과된다. 연합감리교회나 하나님의성회와 같은 미 교단들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실례로, 미국내 100개 대형교회들 중 과반수 이상이 무교단 교회들이고, 조만간에 가장 큰 복

고, 2014년에는 거의 같은 숫자 즉 6.5%에 머무르고 있다. 이들 중 카리스마틱이나 오순절 전통에 속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신학적인 견지에서, 흑인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다른 신학 전통에 속한 교회보다도 복음주의에 가깝다. 비록 두 교회 전통이 정치에 대해서만 엇갈리지만, 대부분 동일한 맥락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 실례로, 흑인교회 교인 중 85%는 종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여긴다(복음주의의 교인들 역시 85%). 흑인교회 교인 중 85%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88%의 복음주의자). 그리고 80%는 기도를 매일하고 있다(79%의 복음주의자)

무교단 교회는 증가하고 역사적 흑인교회는 꾸준 명목상 문화적 기독교는 사망... ‘넌스잡기’ 가 사망

음주의적 교회는 무교단교회가 될 것이다.

2. 역사적인 흑인교회들의 안정성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아메리칸 교회들 즉 흑인교회들과 교단들(the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the National Baptist Convention, and the Church of God in Christ)은 여전히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동 교회들은 복음주의 교회들과 유사한 신앙 체계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그다지 원하지는 않는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2009년 미국인 중 7% 정도가 흑인교회에 다니고 있

3. “어중간한 크리스천(Christian middle)”의 침식

현재 우리는 미국에서 기독교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목할 만한 변화들을 보고 있다. 문화는 바뀌고 있고 종교지형은 발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즉 기독교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이나 문화적인 기독교의 사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넌스”(전에는 크리스천)는 증가하고 있다. 대략 ¼ 정도의 미국인들이 어떠한 종교적 전통이나 소속에도 속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 노하루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박희성 목사 myong@joenchulpan.com

 2면 시리아 내전의 또 따른 비극, “슈퍼버그”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6면 인/터/뷰 ISF 국제학생회 임혜진, 노슬기 간사
---	---	---	--

회개! 부흥! 선거!

다민족연합기도대회

2016 — 회개·부흥·선거 —

HEAL OUR LAND!

이 나라에 강력한 부흥을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모두 함께 모여 비상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이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고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강력한 대부흥이 속히 일어나야 하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부흥의 기회입니다.
이때를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에스더의 각오로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구하십시오.

문의: 323-933-4055 | 714-336-4378 | 714-615-9191

시간: 10월 23일 주일 밤 5시-8시
장소: 디즈니랜드 옆에 위치한
애나하임 컨벤션센터
Anaheim Convention Center:
800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주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JAMA, OC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 남가주지역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OC목사회, OC원로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평신도연합회, OC장로협의회, 미주성서화문동분부, SOON Movement(KCCC), CMF, HYM, 미스바철야기도회, FireCrusade, Jesusholic Movement
후원: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위클리,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투데이, 기독교일보, 국민일보, CGNTV, CTS, 미주복음방송, CBS기독교FM방송, 미주기독교방송, 우리복음방송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

시리아 내전의 또 다른 비극, "슈퍼버그!"

뉴스위크, IS보다 더 치명적인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 창궐 보도

무함마드 아부 아라는 중대하고 새로운 위협을 상징한다. 그러나 요르단 암만에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MSF) 재건외과 특수병원의 격리 병동 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운 그에게서 위협적인 면은 찾아볼 수 없다. 왼팔은 팔꿈치 위에서 절단됐고 한쪽 다리는 금속판에 싸여 있다. 아라는 내전의 폭력으로 갈갈이 찢긴 삶을 이어가는 다른 수천 명의 시리아인과 다를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동의 보건 전문가들의 눈에는 그를 비롯해 암만의 MSF 병원에 있는 여러 환자가 무시무시한 새로운 추세의 일부다. 그 환자들처럼 거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시리아인이 갈수록 늘어난다. 그들을 치료하려면 감염된 팔다리를 절단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초강력 항생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시리아 내전은 또 다른 파국으로 치달고 있다(The Syrian Civil War Could Spell The End Of Antibiotics).

팔다리 부상이 아닌 경우엔 예후가 더 나쁘다. 암만 MSF 병원의 외과 연락관 라시드 파크리는 "그런 환자의 가슴이나 뇌가 감염되면 사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곳을 절단할 수는 없지 않나?"

시리아 국경 지역의 병원과 임시 진료소에서 활동하는 의료진은 지난 5년 반 동안의 내전이 불러온 죽음과 파괴 속에서 상상 가능한 부상은 전부 목격했다고 생각했다. 몰답뻬대로 지혈한 가슴의 상처부터, 불발



항생제 내성으로 왼팔을 절단하고 한 쪽 다리에 금속판을 싸야만 하는 무함마드 아부 아라는 기존 의료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체 엔티 바이오틱 리서치 UK가 말했다.

시리아에선 문제의 일부가 약 복용에 대한 안이한 태도에서 기인한다. 종종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듯이 이곳에서도 오래전부터 항생제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었다. 항생제를 부작용 없는 만병통치제라고 생각하는 주민도 많다. 의사들은 두통부터 감기까지 모든 증상에 무조건 항생제를 처방했다. 오지의 농민은 의사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항생제를 복용했다. 위험을 아는 약사도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항생제를 그냥 팔았다. 시리아에서 수십 개에 이르는 제약 공장이 가동되면서 주민 거의 모두는 항생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내전으로 시리아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항생제 내성 위기가 촉발됐다. 그와

수많은 민간인 부상, 의료체제 붕괴에 따른 결과 전 세계 매년 약 70만 명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

식용동물 대규모 사육으로 박테리아가 항생제 내성 갖는 속도 빨라져

된 로켓 추진 수류탄에 의해 함몰된 쌍둥이 형제의 두개골까지 온갖 처참한 모습을 다 봤다. 그러나 전쟁이 격화되고 전투원만이 아니라 민간인의 상황도 악화되면서 그곳의 의료진과 구호대원들은 머지않아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나 공포의 시리아 공군보다 항생제 내성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그런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시리아는 '20세기 기적의 약이었던 항생제가 완전히 무용지물로 전락한 곳이 될지 모른다.'

항생제 내성과 관련된 시리아인 사망자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아무런 현재로서는 견보기에 그 문제는 통제 가능한 듯하다. 지난 8월 톱퉁탄(드럼통이나 원형 철제 용기에 폭약을 채우고 못이나 배어림 등 각종 쇠붙이 조각을 넣어 만든 폭탄) 공격을 받은 다마스쿠스 교외에 살던 14세 소년은 요르단의 한 병원에 도착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발성 감염으로 사망했다(병원에서 갖고 있던 모든 항생제가 듣지 않았다).

레바논의 베카 계곡에 있는 한 야전 병원의 의료진에 따르면

효과 없는 항생제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사망률이 크게 높아졌다. 베이루트와 시리아 국경 중간 지점인 슈투라의 난민 응급병원에서 자원봉사 간호사로 일하는 마리아 무함마드는 "지난해 우리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2명뿐이었지만 올해는 항생제가 듣지 않아 지금까지 벌써 4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의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시리아의 열악한 오지가 가장 취약하다. 암만의 MSF 병원에는 현재 환자의 절반이 만성 감염증으로 입원한다. 그중 60%는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보인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유엔 관리들은 오는 9월 말 슈퍼버그에 관한 긴급 총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MSF 연락관 파크리는 "그런 환자가 늘어나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 항생제 내성 위기가 닥친 곳이 시리아만은 아니다. 세계의 다른 곳도 그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영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약 70만 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하며, 2050년이 되면 그 수

는 10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많지만 농업 분야의 항생제 사용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많다(축산 농민은 동물을 살찌우기 위해 항생제를 강제로 먹인다).

환경운동가들은 특히 미국에서 식용 동물의 대규모 사육으로 박테리아가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지적한다. 반면 농업 대기업을 동물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무튼 세계는 페니실린부터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는 폴리펩티드까지 기존의 모든 항생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시점이 있다고 영국의 항생제 남용금지 운동단

함께 병원군 전파에 적합한 환경도 만들어졌다. 시리아 정권은 톱퉁탄과 집속탄으로 병원을 공격했다. 그 결과 시리아의 의료 노하우 대부분이 소멸됐고, 일부 지역에서 응급실의 위생 관리 수준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했다.

예를 들어 오지의 산악 휴양지 마다야에선 수천 중인 수의사와 치료사가 인구 수천 명인 이 도시의 모든 환자를 치료한다. MSF 암만 병원의 의료인 영구장 나감 후세인은 "2012년 시리아인을 받아들일면서 우리는 '그들이 부상은 심하지만 항생제 내성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7면으로 계속)



시론

"세 부모의 아이-생명윤리의 문제"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세계 최초로 한 아파와 세 엄마의 유전형질을 이어받은 아이가 출산했다. 이 아이는 현재 생후 5개월째의 '아브라함 하산'이다. 아이의 친모는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희귀병인 '리증후군(Leigh syndrome)'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 이 질환은 세포의 소기관 중의 하나인 미토콘드리아 DNA에 결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희귀 질환이다. 이 질환으로 인해 하산의 친모는 지난 10년간 아이를 4번씩이나 유산을 해야 했고, 어렵게 얻은 2명의 아이도 생후 8개월, 6세에 각각 사망하는 아픔을 체험했다. 마침내 이 부모들은 이 분야의 전문 연구진에게 의뢰했고, 연구진은 친모의 난자에서 핵을 빼낸 뒤 정상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멕시코 여성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에 친모의 난자 핵을 넣는 방식으로 새로운 난자를 형성했으며, 그렇게 형성된 난자를 아빠의 정자와 체외 수정을 시킨 후, 친모의 자궁에 착상시켰다. 미토콘드리아 DNA를 치환한 인공 수정을 이용한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또 하나의 과학문명의 성과로 기록될 만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하산은 친모와 다른 여성의 난자를 통해 수정되었기에, 유전자조작을 통한 생명윤리의 문제를 평생 안고 사는 존재가 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인공수정을 찬성하는 자들은 이번엔 사용한 방식이 배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난자의 미토콘드리아의 핵만 치환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생명 윤리의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것이라는 견해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생명을 치유한다는 명분으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맞춤형 아이'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에서 치명적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 부모의 유전자를 결합하는 방식의 인공수정을 승인하고 있지 않은 미국에서 이 시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멕시코에서 이루어진 점이 이를 반증한다. 더불어 이 아이가 현재로는 생후5개월이 되었지만 앞으로 잘 자랄지를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연구진들도 말하고 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 유전자센터 베르트 스메이즈 교수는 "아이의 몸속에서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지 않는지 꾸준히 살펴본 뒤 판단할 일"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됨을 형성하는 가족 윤리의 문제이며,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기술로 조작된 생명의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과연 나의 부모는 누구인가? 나는 창조된 인간인가? 인간 기술로 만들어진 인간인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과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여하튼 유전자를 조작하여 만들어지는 실험관 아이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생명 윤리의 문제를 내포해왔다. 앞으로 이 문제는 치유라는 명분으로 더욱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인간 치유와 생명 창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명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치유문제는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숭고한 인류문명의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유전자를 조작하여 또 다른 생명으로 만들어 내는 문제는 원형이 아닌 변형으로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 도전하는 심각한 바벨 문명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 하에서 인간에게 명한 정상적 출산행위를 통한 생명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대행하는 인간의 숭고한 사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 언약 하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선물임과 동시에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신비한 타자(他者)이다. 하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서 출발한 배아 시험과 선택, 또한 생식 복제, 유전자 조작을 통한 실험관 수정 등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물품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 생명윤리학자 길버트 밀랜더(Gilbert Meilander)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됨과 똑같이 존엄한 인간됨의 신비가 자녀들의 삶에서 펼쳐지게 하기를 대단히 꺼린다. 우리는 인간됨과 자손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신비 앞에서 겸손의 마력을 지녀야 한다. 우리는 후대의 자녀들이 우리가 틀에 넣어 만들어 내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조작된 생명일 뿐이다.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존재의 산물이지만 인간 의지의 산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기독교 윤리와 정치 신학자인 올리버 오도노반(Oliver O'Donovan)의 "낳았는가? 만들었는가?"(Begotten or Made?)라는 질문을 되묻고 싶다. 이 질문은 현대문명에 끊임없이 던져져야 할 질문이며 더불어 성경적으로 끊임없이 답해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

johnjdc@yahoo.com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러시아, 서방종교 선교활동 대대적 단속

(1면에서 계속)

정교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기독교 교단이나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등 서양에 뿌리를 둔다. 러시아정교회 지도부는 새 법이 신앙 공유를 막는 게 아니라며 비판과 반대를 일축한다. 크렘린과 러시아정교회의 우호적인 관계는 옛 소련의 몰락 후 잃어버린 영향력을 회복하기 원하는 민족주의 이념에서 비롯됐다. 1997년에도 러시아 의회는 서양 종교의 선교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종교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이슬람 신자들은 새 법을 두고 견해가 엇갈린다. 일부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오세와르데는 새 법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이틀 후 법정이 선임한 변호사 안드레이 부텐코는 그를 부부가 러시아에 계속 머물면 위협하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부텐코의 경기가 당국의 간접적인 메시지로 판단했다. 그에 따라 그의 아내는 지난 8월 22일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는 항소를 위해 오를에 남았다.

부텐코 변호사는 뉴스위크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기는 당국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었다며 그들 부부의 신변 안전을 위해 진심으로 우려한 종교였다고 말했다. “전통 러시아 신앙을 제외한 모든 종교가 러시아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다. 국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경찰은 원래 그렇다. 필요하다면 그들은 오세와르데를 해칠 수 있

다.”

당국의 단속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 종교인은 오세와르데 부부만이 아니다. 지난 7월 말 경찰은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유학생인 에베네제 투아를 구금했다. 투아는 모스크바 부근의 작은 도시 트베리에 있는 수영장에서 세례 의식을 행하다가 체포됐다. 그와 가나 출신 여러 명은 자신들의 개신교 의식을 위해 그날 하루 수영장을 임대했다. 러시아인은 그곳에 없었다. 투아는 수감을 차고 경찰서에 잡혀가 하룻밤을 보냈다. 당국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종교의식을 행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벌금 5만루블(약850달러)을 부과했다.

오세와르데와 투아를 비롯해 새 종교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대리해 항소를 제기한 ‘슬라브법과 정의센터’의 콘스탄틴 안드레브 변호사는 “경찰이 그를 형사범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개신교 전도사이기도 한 안드레브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새 법은 2012년 푸틴이 대규모 반대 시위를 묵살하고 대통령에 세 번째로 취임한 이래 시작된 광범위한 시민자유 탄압의 한 부분이다. 그는 법원과 경찰이 새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엄밀히 말해 새 종교법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개종시키려는 종교집단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당국은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종교활동에 선교나 전도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자들은 지적한다.

안드레브 변호사는 “국수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법”이

라고 말했다. “러시아정교회 신자가 아닌 동시에 러시아의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 싸울 수단을 이제야 갖게 됐다고 그들은 환호한다.”

새 종교법이 발효된 이래 특히 모스크바 교 신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 8월 러시아 당국은 그 교회의 선교사 6명을 추방했다. 의무적인 등록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로 알려졌다. 그들의 추방은 신앙 공유에 관한 새 종교법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분석가들은 최근 들어 러시아에서 나타난 외래 종교 혐오증의 발로라고 믿는다.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과학원의 종교 분석가 로만 룬킨은 “의원들은 외래 종교의 선교사들을 위협한 존재라고 본다”며 “외국인 선교사들은 유죄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정교회의 일부 신자도 새 종교법을 비판했다.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정교회 청소년클럽을 운영하는 카리나 체르냐크는 종교와 러시아 사회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소나센터를 위해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 법은 기독교의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다.’

한편 오세와르데는 오를에서 항소를 준비 중이다. 현재 그는 성경공부 모임을 중단했다. 그의 집 현관문 앞에는 러시아어로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곳에서 모임은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모임이 불법이라는 공식적인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도날드 오세와르데.’

흥미롭게도 1972년 이후 여론조사에 따르면(the General Social Survey),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통계를 볼 때, 확신을 가진 크리스천의 비율은 안정세다. 반면에, 주류교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결론으로, 활기차고 생생한 신앙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죽지 않는다. 일반 언론이나 세속주의자들은 믿지 않을 수 있는 신화(?)와도 같다. 기독교 신앙을 실천해, 그러나 설문이나 리서치를 통해 드러난 미국 기독교의 현주소는 이제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금처럼 단단하고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도전이다!

“확신을 가진 크리스천들을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고 여러 연구 결과는 웅변한다. 그 대신 “어중간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미국 크리스천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주변에서 이제는 어떠한 교회 전통이나 교회공동체하고는 상관이 없거나 신앙을 기억하고만 있는 이웃들을 단단하게 부여안고, 여전히 우리를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하나님에게 인도해야 하는 더욱 철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대회활동 이야기 (2)

필자는 부총회장 후보라면 누구나 해야 된다는 전국대회 준비나 지역 방문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고 책임을 져 주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무모하고 무리한 생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왜 안 오느냐? 내려와라”는 제촉을 받은 경우도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 만나러 가지 않았다. 돈을 썼다면 20년 동안 썼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20년간 한 셈이다.

선거는 선거다. 상대가 있고 표를 행사하는 개인이 있고 집단이 있다. 그래서 사람도 만나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도를 빛나고 균형이 깨지면 안된다.

선거를 치러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가늠할 수 있다. 선거전이 가열될수록 추해지는 사람이 있고, 고매해지는 사람이 있다. 마치 선거의 귀재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과대 포장하는 사람, 사단장이라도 되는 양 자신의 힘으로 몇백 표를 움직일 수 있다며 호언하는 사람, 선교단체 이름을 내세워 물표와 조건을 바꾸자는 선거 브러커, 별별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일절 그들의 제안이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유는 추한 사람들의 추한 타협 제안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말없이 필자를 돕고 지원해준 많은 동역자들에게 지금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총회 장소는 서울 명성교회였다. 부총회장 후보로 나선 교회의 당회원과 교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총회장소 마당에 들어서 입장하는 총대들에게 정중한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 단 한 사람도 마당에 서게 하지 않았고 교인을 동원하지 않았다. 필자 역시 총대들을 만나기 위해 마당에 돌아다니지 않았다. 총회가 개최되는 시간까지 골방을 빌려 기도하고 소견 발표문을 다듬고 점심은 설렁탕으로 주문해 혼자 먹었다.

대형현수막 내걸고 수십 명씩 교인 동원하고 꽃다발 준비하고 그리고 난 후 선거에서 떨어지면 그 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왜 생각 못하는가? 구겨진 자존심과 허탈감에 빠져 상처 입은 교인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목회자는 총회장보다 양떼가 더 귀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다를 바 없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경력이나 경험이 일천했던 탓으로 총회장으로서 회무처리가 서툴 수밖에 없었다. 총대 구성원 중엔 별 사람이 다 있기 마련이다. 구경삼아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뭔가를 작심하고 앉아 있는 사람, 법률 전문가인 양 법을 따지는 사람, 안건마다 나서는 사람들과 소리 지르고 따지는 사람들은 대

중 15명 안팎이었다. 그들은 사명이라도 부여받은 것처럼 안건마다 발언했고, 3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지면 욕성으로 고함 치며 발언을 계속하곤 했다. 입을 다물면 쯤이 쭈시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고 많다.

맡겨진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

총회장 기간 중 국내외 많은 사람을 만났고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고 주재하기도 했다. 기억에 남는 만남은 북한교회(조그런) 지도자들과의 만남이다.

첫 번째는 헝가리 데브레 첸에서 개최된 세계개혁교회연맹 총회에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고 강영섭 위원장과 몇 사람의 대표가 북한교회 대표로 참석했다. 셋째 날 저녁에는 남북교회의 밤으로 진행됐고 필자와 고 강영섭 위원장이 강연에 나섰다.

두 번째는 뉴욕 UN본부에서 한국, 북한, 미국 세 나라 교회대표단이 현안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구국대표단 회의에서였다. 역시 그들은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기를 주저했고 자기네들까지 합의된 사항만을 의제로 다루거나 제안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개회 첫날 개회예배 설교를 마친 필자에게 강영섭 위원장이 이런 유머를 던졌다. “박 목사님, 저희 북수교회 오셔서 부흥회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멋진 설교 들었습니다”, “안되었습니다. 박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인도하시면 우리 교인들 모두 다 박 목사님 따라나서겠는데요?” 그러나 현재까지 필자는 북한을 방문한 일이 없다.

세 번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남북교회 지도자 회의에서였다. 사석에서 “매번 같은 얼굴만 나오지 말고 다른 대표도 참석하도록 하시지요”라고 하자 “저희 기독교 연맹은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굴 바꿔 나올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강 위원장의 답이었다.

이곳에서는 북한교회의 요구와 제안이 그리고 한국교회의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그리고 그들과의 약속은 귀국 후 반드시 실행에 옮겼다. 그들 말에 따르면 “수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만났고 북한방문단을 만났다. 그들은 오만 가지를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킨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이다. 약속! 그것은 인격과 삶의 시금석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하는 게 좋고, 어린아이와의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목사의 경우는 약속 이행이 철저해야 한다.

iamcspark@hanmail.net

확신 가진 크리스천은 신앙 떠나지 않는다!

(1면에서 계속)

갈수록 그 숫자는 증가할 전망이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인 중 밀레니엄 30% 정도가 현재 '넌스'이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의 어떠한 부분과도 상충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넌스'의 증가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한다는 일종의 신호로 여겨야 한다. 일반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중 ¼ 정도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종교가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문에 “크리스천”으로 적는다는 현상을 깨달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인은 크리스천이라는 천편일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유태인이 아니거나, 힌두, 무슬림 그리고 불교도가 아니면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여긴다. 그러나 교회는 “크리스천”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 차이가 엄정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여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부류가 있다:

1. 문화적 크리스천들 (Cultural Christians)

단지 문화나 자라온 배경이 크리스천

이기에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본다. 모태 신앙이었거나, 남부 복음주의나 아이리시카톨릭과 같은 종교에 연관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크리스천이라고 여긴다.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여기는 사람들 중 75% 중 1/3 또는 미국인 중 25%가 여기에 속한다.

2. 회중적 크리스천들 (Congregational Christians)

이들 역시 문화적 크리스천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교회공동체하고는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다. 어렸을 때 고향 교회에서 자랐거나 결혼을 교회에서 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를 찾아가곤 한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살아 있는 신앙 행위는 없다. 단지 이들은 방관자일 뿐이다. 이들 역시 75% 중 1/3 정도거나 미국인 중 25%다.

3. 확신을 가진 크리스천들 (Convictional Christians)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 실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들이다. 예수를 만나 영접했고 예수가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이후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한다. 이들 또한 75% 중 1/3이고 미국인 중 25%이다.



강사 | 김선교 선교사

현) 다윗의 열쇠 대표
2005~2013년 순회선교단 사역자
<저서> 믿음은 분투다

MORE INFO

714-393-5135 (Douglas Kim 선교사)
www.hym.cc | hym21c@hotmail.com

제35회 HYM 청년연합집회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표적과 기사

“Stretch out your hand to heal and perform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through the name of your holy servant Jesus”
Acts 4:28-31

Since 1999

HYM
HYM청년연합회



2016.10.8-9
SAT-SUN 7PM

세리토스 선교교회

Cerritos Mission Church
12413 195th St, Cerritos, CA 90703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빈들에서

혹시 비행기를 타실 때 귀마개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 비행기에서 '이어플러그'라고 말랑말랑한 것으로 비행기의 소음이 시끄러울 때 소음을 막아서 잠을 잘 수 있게도 하고, 비행기가 고도로 높이 올라가 기압차이가 생겨서 귀가 아플 때 이어플러그로 막아서 기압 차이를 막아 귀가 아프지 않게 하는 귀마개다. 이 이어플러그 귀마개를 끼면 우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다. 특별히 딱 맞는 것을 끼우면 밖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좋은 귀마개를 하면 밖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대신에 우리의 심장 박동소리가 들린다. 내 심장이 뛰

고 있는 쿵! 쿵!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그런데 더 민감한 사람은 심장이 쿵! 쿵! 할 때마다 이 피가 짝-짝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때 혈관에 흐르는 피가 파동이 있는 데 이 파동소리까지 들린다고 한다. 우리의 귀가 막혀져서 외부의 소음이 들려오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아무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외부에 많은 것들로 부터 차단되었을 때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고 한다. 로마제국의 속국으로 있을 때, 그래서 통제가 많

아서 다 막히고 되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이다. 우리를 인생도 마찬가지다. 한번 생각해보시라. 인생을 사는 동안 물질이 막힐 때가 있고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다. 자녀문제로 가정에 화목하지 못한 때도 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빈들에서 살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무언가 자유롭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때, 그래서 모든 것이 험악해만 느껴질 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것이다. 어떤 분이 아기 유아세례를 받으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 결혼한지가 6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없더라. 정상적인 부부라면 아이를 낳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지 않겠는가? 이 분도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애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임신만 하면 유산이 되는 것이다. 임신하면 유산되고 또 가까스로 임신하면 유산되고 습관성 자연 유산이라는 것이다. 아이가 태중에서 그냥 죽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이가 유산하면 또 가지던 되겠

지 했는데 한해 두해 지나면서 계속 유산이 되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아예 포기하고 싶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던 중 8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아이를 갖게 해주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기는 주셨지만 이 부부는 마음이 불안했다. 또 유산될까 봐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태중에 아기가 몇 개월을 잘 자라더라. 그래서 불행이 끝나고 이제 행복이 주어졌구나 생각했었다. 그런데 해산할 무렵에 갑자기 의사가 하는 말이 아기가 폐동맥 협착이라면서 폐로 들어가는 동맥이 좁아서 뭔가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심실 중격 결손, 심장에 무슨 결이 있다고 이름도 복잡한 것이 심장기형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애기를 낳으면 낳자마자 바로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다. 폐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형성되어지는 기관이라. 그러니까 그전에 뭔가 알았으면 뭐라도 어떻게 했을 텐데 이제는 너무 늦어서 그게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 폐가 조금이라도 빨리 자라주어야 하는데

기도밖에 할 것이 없더라. 그런데 이걸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 같더라. 그런데 또 게다가 임신중독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10개월도 아니고 8개월 만에 아기를 출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기를 정상적으로 낳아도 출생하자마자 수술을 받아야 될 아이를 8개월 만에 꺼내서 인큐베이터에 넣어 놓는 것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10개월만 채워지면 수술하면 되지! 그랬는데 또다시 의사가 그러더라. "아무래도 현대의학으로는 미숙아의 폐를 수술해서 폐동맥 협착을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가서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만큼 함께 잘 지내시고 그냥 떠나 보내시죠!" 그러더라. 온 몸에 맥이 다 풀리더라. 아니 함께 죽어버리고 싶더라. 그런데 이 소문이 교회에까지 들려와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목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른다. 폐가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는 대로 그대로 자라면 1미리가 모자라서 10개월 만에 밖에 나와도 수술을 못 한다는데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의 폐

를 수술할 수 있을 만큼 기적으로 1미리를 더 자라게 해주셨다. 그래서 10개월이 되어 인큐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 뒤에 1년을 지나면서 두 번 수술을 더 받고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의 유아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그 때 젊은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 붙들고 그 부부가 말씀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빈들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리시라! 그러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제 뭐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어려운 때를 견디어 내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을 받은 요한처럼 뭐하나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 없고 하는 것마다 실패만 거듭되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그 때에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능력 있게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 revpetergang@hotmail.com

푸 / 른 / 초 / 장

황기호 목사
(월서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의 비유는 늘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려워도 이해하기는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지혜로웠다고 칭찬받은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훑어보아도 칭찬할 구석이 없어 보이는 불의한 자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주 이상하고 또 못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기에, 그 청지기가 잘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게을렀을 뿐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본분도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아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참고 듣기는 하지만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듣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 같이 돈이나 재물이 적은 사람에게 할 것이 아니라 돈이 좀 많은, 그래서 넘쳐나는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그냥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문장 앞뒤를 살피면서 읽어야 합니다. 즉 16장 전체가 말하는 맥락에서 본문을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본문 앞뒤를 살펴보면 전제적인 주제는 일단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바리새인을 가리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실은 그 배

그렇다고 이런 비유를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뜻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구제와 구호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가 시키고 말고도 없고, 누가 본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그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이라서 그런 것은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휴머니즘이 없다면, 그리스도인 이전에 사람으로써의 도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비유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실제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16장 9절에서 끝나고, 이어서 예수님의 몇몇 경우가 10-13절에 나옵니다. 앞부분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내용이라면, 뒷부분은 충성된 청지기에

를 경히 여길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도 똑같은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누가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입니다. 즉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가르침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가르침을 앞뒤로 놓고 그 중간에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와는 그 배경이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뜻입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천이라면 마치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하인을 충성스럽다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

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은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의 그런 경쟁을 부추기는 설교도 많습니. 기도도 전투적으로 열심하고, 심일조를 잘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고 외칩니다. 이제는 '예수 축복, 불신 실패'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시원치 않은 사람 취급 받기 일쑤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운동이나 재물의 많음으로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리스천으로서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돈에 붙들려서 살아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삶을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실은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거나, 재물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섬기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것의 종이 된다는 뜻인데, 좋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같이 돈이 세상을 지배하게 놔두거나 돈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돈의 종이 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즉 돈을 소유하면서도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능하면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돈과 재물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웠다는 말을 들은 것도 실은 그가 돈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돈을 다스리는 것, 그것과 완전히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 삶에서 돈이 지배하는 영역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그것에서 자유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는 순간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죽은 사실 그 돈이 무능력해지는 순간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실은 우리는 그런 삶을 당겨서 살기로 작정한 것인데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재물이나 돈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일치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SHREWD MANAGER) (누가복음 16:1-15)

그렇게 돈이나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싫어하거나 비웃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돈을 아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좇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도 드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국 우리의 운명,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는 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돈이라고 하는 것과 재물에 연연하는 것을 아셨기에, 38개의 비유 중에 16개나 되는 비유를 돈이나 재물을 들어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에 재물과 돈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돈이 남아돌았던 부자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생명을 부지하면서 어렵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전혀 다른 운명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삶에 들어가면 그 돈이 전혀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처소, 그 곳은 바로 거지 나사로가 안긴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곳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의한 청지기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빚을 탕감 받은 사람들이 훗날 자신에게 큰 버팀목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는 자족적이고 이기적인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훗날 거지 나사로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관련 이야기입니다. 즉 불의한 것과 충성스럽다는 것이 '지혜롭다'는 말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절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말씀이고, 11절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자라야 참된 것도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12절은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자기의 몫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즉 세 구절 모두, 충성하는 청지기에 관한 구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충성, 즉 얼마나 신실한가로 그 초점이 옮겨갑니다. 즉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한 마디로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재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세상의 재물의 삶에서도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대체 '재물에서 충성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13절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

서도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삶에서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영원하고 참된 것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을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자들을 한군만 잘 드리면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본문은 사실 그런 현금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현금은 교회 운영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물질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심일조와 같은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인의 재물의 삶에서도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대체 '재물에서 충성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13절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

서도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삶에서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영원하고 참된 것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을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자들을 한군만 잘 드리면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본문은 사실 그런 현금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현금은 교회 운영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물질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심일조와 같은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인의 재물의 삶에서도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대체 '재물에서 충성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13절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

아무리 큰 말(馬)이라 하더라도 재갈 하나로 좌우할 수 있듯이, 인생의 흥망성쇠도 작은 세치 혀에 의해서 좌우됨을 성경은 교훈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사들과 범죄하여 패망하는 인생의 일들 사이에 세치 혀의 권세가 있음을 보게 된다.

신앙과 불신앙 - 입술의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홍해의 기적 후에도 단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마시는 물'의 문제로 하나님과 모세를 불신하여 넘어지게 된다.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데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 이처럼 인간에게 허락된 세치 혀는 기회만 되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냄으로써 스스로를

지 않은 말들의 씨앗이 자라 파생하는 문제들은 그 열매가 대단히 충격적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주의하고 훈련되어야 할 부분 가운데 말의 습관이 있다. 그 가운데 부정적인 저주의 말과 원망의 말들이 개인과 공동체를 해치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어려운 이민 생활을 지나면서, 생각만큼 되지 않는 일들로 말미암는 후회가 누군가를 탓하는 저주와 부정적인 말로 쉽게 드러남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을 경고하는가?

시편109:17을 보면, 저주하는 사람은 곧 자기 자신이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한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야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계명을 지키기 위해, '여호와'라는 본래의 이름자체를 부르지 않았고, 다른 별칭으로 불렀다. 그렇다고 3계명이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고 '명령되어 부르지 말라'는 것 때문이다. 경망스럽고 허탄함과 무익함으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농담거리 혹은 장난거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할 특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정당하지 않은 것에 사용할 때는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반드시 죄를 뉘는다는 것이다. 신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권세를 기억

목회자들 중에도 언어로 인한 목회적인 실수와 실패를 많이 보게 된다. 각종 회의를 하거나 시험된 성도의 거친 언행을 상대하다 보니 마귀가 틈을 노리고 찾아든 것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다. 절제되지 못한 감정선이 언어를 통해 폭발하도록 마귀가 역사한 것이다. 교회의 모임인 제직회나 당회를 할 때에 자기 생각에 반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 모든 결과는 고스란히 목회자가 책임져야 하고, 책임지더라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의 말의 그 천박함(?)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간사 제자교회)



말(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

- 입술의 권세와 열매, 영적 긴장감 -

망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한다.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그 사람의 내어뻐는 말들이 그의 신앙인격과 삶을 가장 잘 대표한다. 성경의 시대나 지금이나 믿음의 성숙함을 소유한 이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입술이 절제되고 근신한 이들이었다.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 달라시(141:3)고 소원하였으며, 세치 혀를 약한 것과 입술의 꾀사한 말들에서 금할 것(사34:13)과 자신의 혀로 범죄치 않기 위해 악인이 자신의 앞에 있을 때에는 차라리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일 정도로(사39:1) 근신하며 주의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음을 보게 된다. 신앙의 삶에서 입술의 범죄함에 대한 진지하고 치밀한 성찰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말과 공동체
 마시는 물의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힘을 빼는 탄식들을 늘어놓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확실히 말했다. 백성들을 향해 말하기에 앞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 기도의 언어로 자신의 심정을 내어 놓게 된다. 그는 입술을 절제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마실 물로 인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신다. 모세의 믿음의 말과 기도는 자신도 살고 백성들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다.

어려운 때 원망의 말을 하기 쉽다. 그러나 그때 멈추어야 한다. 모세처럼 기도의 언어를 갖고서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살리는 귀한 역사의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민 사회의 많은 문제들과 이민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일들 가운데 불신앙적인 입술의 말들이 그 근원 샘물이 됨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저주와 원망의 말
 세상은 생명체와 같은 죄의 전염성으로 인해 그 열매가 사망을 향해 달려감을 보게 된다. 그 언어들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이민사회 속에서 쉽게 보게 되는 말과 소문(?)의 해악을 생각하면 충격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 교회와 가정과 삶의 영역가운데 선하

기때 아니하더니."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흑여 앞에서 누가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것을 멈추도록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불신앙의 언어는 원망의 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 광야에서 실패와 죽음의 이유를 '원망하여 가로되'라고 간결하게 증거한다. 소망 없는 필절한 인생의 단절이 원망이다. 젊어서 부모를 원망하던 사람은 나중에 자식을 원망하게 된다. 결국 평생 다른 사람 원망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성경에 '원망치 아니하면 멸망을 피하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원망하는 삶은 멸망 받아 마땅한 삶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리더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특별히 교회의 일을 맡아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 받을 수 없고 멸망받기 때문이다. 원망이 입에 늘 있는 사람은 스스로 교회에 중직도 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곧 멸망 받을 사람이 교회의 중직이 되어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유 때문이다.

말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의 사람은 혀의 권세, 말의 권세를 인정할 때 그것이 자신에게 큰 복이 됨을 인식해야 한다. 세치 혀로 행하는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면서, 예비하신 축복을 스스로 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쉽고 가까운 생활의 말들에서 부터 말과 혀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고 말씀한다. 세상 사람들도, 말 한마디에 복이 나간다고 말한다. 지혜로운 어른들은 말이 많고 험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말에 부주의한 사람은 혀의 권세를 알지 못하기에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
 저주와 원망의 말과 더불어 삶에서 우리는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영적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과 그의 세우신 몸된 교회에 대한 말들은 극히 주의해

자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언어를 사용함이 중대한 범죄가 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고 경망스럽게 사용하여 입술로 범죄 하는 것은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며 결코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죄'를 물으시겠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를 말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는 그 이름을 헛되게 해서 안된다.

예배로 모일 때,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약속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의 이름 곧 그의 인격과 거룩성에 대한 중요한 훼손이 되는 것이다. 또한 담배연기 자욱한 술집에서, 술이 취해서 신앙적인 논쟁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수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술판의 안주거리가 되어질 때 결코, 옳은 것이 되지못함을 말한다. 특별히, 세상모임에 가서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자리이면 교회회기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상의 조롱어를 신자가 사용
 오늘날 인터넷의 기독교와 관련이 깊은 매체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비판하거나 교회 사건사고를 다루고 사용함에 있어서 세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가를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면 기독교의 기독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이를 비하하는 말로 '개독교'라는 말을 사용한다. 목사에 대해서는 '떡사' 등 신자의 입에서 세상이 신자와 교회를 비판하는 말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조롱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정의감을 칭찬하실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그 표현이 거칠어 질 때 본질적인 내용의 의도가 훼손됨을 본다. 언어는 생각속에 잠재된 삶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데, 거친 신앙의 언어는 그 말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사람이 그 말로 인해 입술의 복록을 누리게 된다면, 언론매체들의 무차별적인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거친 언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찾으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입술이 복음증거의 나팔이 된다고 할 때, 복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적 긴장감

말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 시험 듣게 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언어생활 가운데 믿는 자의 향기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품격을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에, 말씀을 듣고 다시 자신의 입술의 말에 복음을 담아 전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에 그러하다. 말 많은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아니하고, 어려운 세상을 옹호하며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입술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davidnj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오늘날 다인종이 함께 사는 이 미국에서 흑인 총격사건 등 흑백문제, 인종 갈등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종문제의 기원은 어디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종 문제의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요?
 -토랜스에서 이희은

A: 하나님은 다인종을 만드셨고 그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하늘의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무리"(계7:9)가 나옵니다. 이것은 구속받은 자들에 대한 환상으로 다민족, 다인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꿈입니다. 천국에서는 다인종에 대한 차별개념이 완전히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다인종사회의 꿈을 성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상에서도 다인종의 꿈을 추구해야 합니다. 즉 차별이 없는 인종적 정의와 충돌이 없는 인종적 조화가 특징인 인종간의(inter-racial) 사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현대 인종문제의 기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과거의 노예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성경학자인 존 스타트(John Stott)가 쓴 New Issues Facing Christian Today(현대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새 이슈)라는 책을 보면 과거 노예제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될 때에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던

그리스도 복음 외엔 다인종을 하나로 묶을 방법 없어

유럽국가들 즉 스페인, 포르투갈, 네델란드, 프랑스, 영국)이 그들의 신세계 식민지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비인도적인 관행을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더욱 나쁜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경제적 필요(노예제도 외에는 산업혁명이 필요한 다른 노동력의 원천이 없었다), 인종적 우월감(흑인을 잘 대접해줄 필요가 없다), 성경적 허용(성경은 노예제도를 규제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정죄하지 않는다), 인도주의적 유익(노예제도는 노예들을 아프리카의 야만상태에서 미국의 문명세계로 옮겨 가게 해주었다), 심지어 선교적 기회(아프리카인 이교도들이 신세계에서 기독교를 소개받을 것이다)를 근거로 노예제도에 대한 정교한 변명을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주인들의 뻔뻔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이라고 존 스토트는 그의 책에서 비판했습니다(p.309).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1914년부터 1980년까지 흑인들이 복부와 서부의 도시들로 다수 이주하고 그 결과로 도시에서 백인들의 대 탈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사는 곳은 대개 도시의 다운타운 주변이고 백인들은 흑인들이 없는 외곽지대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민 정책은 아시아와 다민족들의 이민을 통해 흑백 대결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다인종주의에 대해 성경적인 기초는 행17:22-31절에서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설교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면서 인종적 문화의 다양성을 말했습니다. 행17:26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들이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다인종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3:28).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는 이 다인종을 하나로 묶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다운타운에 나가보면 아직도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인종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인종차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열방의 소망입니다(롬15:12).

담임목사 청빙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에서는 현 담임목사의 시무가 2017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목회의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실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격

1.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WEMA(세계복음선교연합회)에서 안수 받으신 분
2. 정규 신학대학 이상 졸업자, 목사 안수 후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
3. 브라질 선교에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
4. 복음적인 교리가 분명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첨부, 학력, 목회 경력, 일반 경력)
2. 목사 안수 증명서,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및 최종학위 증명서 각 1부
3. 목회 비전 계획서 1부 (목회동기, 철학, 비전, 바람직한 교회상)
4. 자기 소개서 (본인 및 사모를 포함한 가족포함-가족사진 포함)
5.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편 (포어 설교 가능하신 분은 1편은 포어 설교 제출)
6. 연령 (40~60세)
7. 추천서 2부 (각 추천인의 밀봉 날인하고 추천인 연락처 요망)
8. 건강 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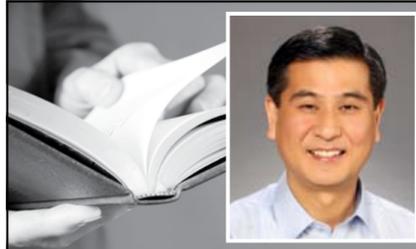
제출방법

1. 우편주소 : R. Mamoré 71 - Bom Retiro, SP - Brasil CEP : 01128-020
2. E-mail : andrejhong@hotmail.com(Cel 55-11-99126-8574) 청빙위원회 서기 홍정표
3. 서류마감 : 2016년 9월 30일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이메일로 먼저 보내주시고(첨부파일 : 서류 - PDF파일 형태, 설교 동영상 - 동영상 파일 혹은 MP3), 우편(마감일 도착 안에 한함)으로도 보내 주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모든 서류를 보냈음을 확인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 봉투에는 반드시 '담임목사 청빙 지원 서류 제출'으로 표기 부탁드립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서류심사에 통과된 분은 추가서류와 연담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파울루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68)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신앙의 자유와 경건 (8)

교회는 세상을 위해 그 안에 존 재한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교회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부터 시작된 수도원 운동은 전통 교회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 교회에 대한 대안일까? 교회를 대적하는 단체일까? 모두 옳지 않다. 서방교회 수도원 운동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정착되었다. 교회 밖의 신앙 활동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단지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중요한 사실이 망각 또는 왜곡되었을 뿐이다.

질문: 초대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인 교부 어거스틴은 수도원 운동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1) 교회 역사를 보면...

■ 교회를 위한 수도원

히포의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부이다. 그는 초대교회의 끝자락에 살았던 인물로서, 초대교회의 신학을 총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난히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졌던 어거스틴은 회심을 경험한 후, 방탕했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매우 긴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그의 신학과 사상이 후대 교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그 중 하나가 그가 주도했던 수도원 운동이다. 이미 우리는 서방 수도원 운동의 전통을 남긴 베네딕트

(480-543)의 사역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는 어거스틴보다 후대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초대교회 말기와 중세교회 초기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베네딕트가 어거스틴의 수도원 운동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베네딕트 수도원이 강조하였던

는 방편으로 삼았던 것이다. 향후 서방교회는 수도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교회를 위한 수도원"이란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 어거스틴 수도원

어거스틴은 386년에 밀라노에서 회심하였다. 다음 해에 세례를 받은 후, 388년 자신의 출생지인 타카스테(Tagaste, 지금의 알제리

교회를 마음에 품고 수도원에 친히 거주하여 이끌어갔다. 어거스틴의 명성이 확장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 결과, 공동체에 속한 다수의 멤버들이 주교로 세움을 받아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이제 확연히 교회를 위한 수도원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396년, 어거스틴은 히포의 주교로 임명되었다. 교회로부터 덕망과 신뢰를 한 몸에 얻은 그로서 결코

어거스틴수도원, '신학과 경건'의 균형 있는 발전 통해 영적유산 남겨 성도의 모든 신앙활동과 경건훈련은 결국 교회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기도하는 일, 성경을 연구하는 일, 그리고 노동하는 일 모두 어거스틴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공동체에 어울려 지내는 동안 다른 멤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내려놓고 인내와 사랑으로 남을 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베네딕트의 규율서 마지막 부분에 잘 서술되어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구성한 베네딕트 수도원의 전통과 달리, 북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어거스틴 수도원은 교회를 위한 수도원이라는 분명한 특징을 지녔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이 수도원의 전통의 교훈을 받아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쳤다. 경건한 삶을 위하여 교회생활을 통하여 얻을 수 없는 부분을 수도원을 통해서 얻지만, 결국 수도원이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수도원을 경건한 교회지도자들을 양성하

지역)로 돌아와 수도원을 창설하였다. 회심과 함께 수도사의 신분으로 경건한 태도로 진리를 습득 하려는 그의 겸손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는 몇 명의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구성하여, 391년까지 약 3년간 그의 거주지에서 수도원을 운영하였다. 개인의 소유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공동체에 속한 멤버들이 함께 생활 하면서 기도와 성경 연구, 그리고 노동에 전념하였다. 그가 처음 창설한 수도원은, 아직 교회와 연관 을 맺지 못한 채 수도사들을 위한 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391년, 어거스틴은 히포의 사제로 임명되어 타카스테의 생활을 접고 이주하였다. 그는 이곳에서도 수도원을 창설하는데, 교회당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이 수도원은 기본적으로 평신도들에게 개방되었으며,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에게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초대교회가 건네준 기본 정신을 함양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미 교회의 사제로 부르심을 받은 어거스틴은

피할 수 없었던 결과였다. 여러 가지 교회 업무로 인하여 사택에서 생활하여야 했다. 그 당시 수도원은 더욱 확장되어나갔기에, 그 전통이 지속되기를 바랐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 안에 다른 형태의 수도원을 창설하였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제들로 구성된 수도원이었다. 그들은 수도원의 정신을 그대로 수용하여 금욕적이며 겸손한 삶을 추구하였다. 어거스틴은 이와 같이 세상과 구별된 수도원이 아닌, 교회 안에 존재하는 수도원의 특이한 전통을 남겼다. 어거스틴 수도원은 향후 '신학과 경건'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후대 교회에 커다란 영적 유산을 남겨주었다.

■ 두 권의 책

어거스틴이 수도원 운동과 관계되어 저작한 두 권의 책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규칙서"이다. 이 규칙서는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성경이 지시하

는 첫 계명을 준수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나아가서 한 가족으로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취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가난의 정신, 겸손, 기도생활, 가난의 정신, 지상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절절한 생활, 공동체 사랑, 재산의 공유와 사랑의 친교, 정결 및 건강관리, 노동에 대한 태도, 이웃 사랑 실천, 그리고 순종과 봉사 등이 있다. 마지막 부분에는 "규칙서"의 내용을 한 주 한번은 반드시 읽고 항상 마음에 새기어 실천할 것을 명령한다.

다른 하나는 "수도사들의 노동"이란 제목의 책이다. 카르타고에서 수도사들의 노동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게 되자, 어거스틴은 주교의 요청으로 수도사들의 노동에 대한

들이 생겼다. 기본적으로 금욕이며 절제하는 삶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각 수도원마다 특징을 갖추고 발전하였다. 어거스틴 수도원 역시 다른 수도원과 구별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의 기본적인 정신, 즉 교회를 위한 수도원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2) 성경이 보인다 - 에베소서 1장; 사도행전 2:5-11, 43-44, 3:46, 4:34-35; 요한일서 1:3; 빌립보서 1:15, 2:12)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다. 그 안에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다. 하나님은 교회, 즉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교회를 건물이나 제도적 조직체로 이해하고 있다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원대한 계획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교회는 몇 개인의 사조적이나 친교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도록 하는 기복적 종교 집단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동참하는 영적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반드시 명심할 것이 있다. 모든 성도의 모든 신앙 활동과 경건 훈련은 결국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 안에는 진정한 영적 교제가 있어야 한다.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신앙심이 얕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배려하여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사들 중에 노동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환경에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 열심히 노동에 임함으로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을 권장하였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게으름과 노동을 기피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만일 수도사가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공급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중세시대에 들어와 여러 수도원 covenantcho@yahoo.com

(2면에서 계속)

"하지만 내전이 지속되면서 무해한 박테리아가 아주 고약한 병원균으로 돌변했다. 지금은 모든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분석가들은 항생제 내성이 시리아의 일반 거리에도 퍼졌는지 아니면 전투 지역의 병원에 국한됐는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실험실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분석가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시리아인이 전염의 잠복기 너무 빨리 사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사들은 자동차 폭탄부터 공습까지 모든 폭발을 통해 신체 부위와

살점이 널리 분산돼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널리 퍼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아니면 훈련이 부족한 의료진이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하다 보니 부주의로 인해 감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운상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부상한 시리아인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똑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옥 같은 시나리오다.

시리아 남부 다라 출신으로 지난 해 3월 공습으로 다리를 잃었고 파편이 박힌 발목에서 시작된 감염으로 나머지 다리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압델 살렘(20)은 "우린 진짜 운

이 없다"고 말했다. "요르단의 안전한 곳에 와 있어도 전혀 안전하지 않으니 말이다."

시리아 정부에 맞서는 반군 자유시리아군이 운영하는 아진병원에서 처음 치료 받은 살렘은 위생병 역할을 겸하는 전투원이 주는 약을 무조건 복용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군이 그 지역을 탈환한 뒤 그는 치료를 거부당했다. 상처가 곪기 시작하자 고향이 그를 요르단으로 탈출시켰다. 그가 국경에 도착하기 전까지 의사 5명이 그의 다리를 수술했지만 암만에 닿았을 때 그의 상처 부위에선 고름이 흘러나왔다.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을 시리아인이 더 많을지 못하다. 시리아 내전이 잦아드는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위생 상태가 엉망인 어두워진 지하실이나 동굴에서 오염되기 쉬운 재활용 장비로 정교하고 복잡한 수술을 계속하는 한 감염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의료진의 규모가 환자의 수에 맞게 늘지 않으면 시리아에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의 전파를 막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아직 이르다. 시리아 난민 100만 명 이상을 받아

들이 요르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초강력 항생제 콜리스틴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한다. 요르단 단의 병리학자 4명이나 콜리스틴을 처방할 수 있으며 그들이 실제로 그 항생제를 처방하는 일도 아주 드물다.

아울러 시리아인 환자도 이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더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내전 초기엔 시리아 정부군이 두려워 자신이 어떻게 부상했는지 말하기를 꺼리는 환자가 많았다.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콜리스틴마저 효과를 잃는다(이미 몇몇 국가에서 내성이 보고됐다)고 해도 사

람의 코 점액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가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 때문에 근래 볼 수 없었던 속도도 사상자가 늘면서 의사와 과학자들은 인류의 놀라운 발전 중 하나인 항생제를 보존하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말한다. MSF 연락관 파크리는 "의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전쟁이 문제"라고 말했다. "항생제 내성을 막으려면 전쟁부터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 오 예 배: 오후 8:00 종교평화위원회: 오전 10시 (한), 오전 11시 (영) 영, 권, 위: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오 예 배: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542-0288, Fax: (704)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	안다루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228,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알라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bs.com	앵커리지벨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www.jehc.org/	엘파소열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542-0288, Fax: (718)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1:15 수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cm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청년예배: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추모와 그의 삶에 대한 감사와 환송'

고 임동선 원로목사 장례예배



고 임동선 원로목사 장례예배가 '추모와 그의 삶에 대한 감사와 환송'이라는 주제로 10월 1일 동양선교교회(OMC 담임 박형은 목사)와 하리우드 포레스트론에서 열렸다. 토요일 오전 10시 천국환송예배로 열린 장례예배는 고인의 마지막을 아쉬워하는 OMC 교인들과 OMC와 인연을 가졌던 이들, 그리고 교계 및 사회 각층의 조객들이 OMC 본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열렸다.

박형은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천국환송예배는 임스티브 장로가 기도, 연합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고인의 추모 영상소개로 이어졌다. 이어 허경삼 목사가 '바울의 최후 고별사'(딤후 4:6-8)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고인의 발자취를 회상하며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선한 사명을 싸우고 달려간 위대한 목회자와 스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그의 삶을 본받자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이귀민 권사와 윤임상 교수가 조가를 불렀으며 이정근

목사와 만순자 임경진 형제가 추모사를 그리고 장남 임승광 집사가 인사했으며 이기홍 목사가 축도했다.

천국환송예배를 마친 후 장소를 하리우드 포레스트론으로 옮긴 가운데 열린 하관예배는 임병택 목사의 인도로 시작, 정봉모 장로가 기도한 후 송정명 목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행 20:2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차남 이승천 집사가 인사, 노재록 목사가 축도했다.

고 임동선 원로목사 천국환송예배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설교와 추모 등 순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8월 남미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 고인이 직접 장례일정에 대한 모든 순서를 정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마지막까지 교회를 배려하는 목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1923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난 고 임동선 목사는 서울신학교, 숭실대학교, 북점례교신학교, 남가주신

학대학원, 풀러신학교 등에서 공부했으며 대한민국 공군 초대군중감을 지냈다.

42세인 1965년 미국 유학길에 오르며 이민목회의 길에 접어들게 됐고 1970년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하여 단시간에 부흥한 교회로 꼽히게 됐다. 또한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월드미션대학교 등을 설립했으며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1200회 이상의 집회를 인도하며 사역자의 길을 달려왔다.

고 임동선 목사는 대한민국 대통령령상, 국방장관상,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유가족으로는 △장남 임승광 자부 임문에 손자 임경진(처 스티라), 임현진, 임유진 △차남 임승천 자부 임혜경, 손자 이종진, 손녀 임은진(사위 매튜), 임영진(사위 다니엘) △장녀 임승혜 사위 이시우, 손자 이상현 이상민(처 김민정, 중순자 이삭) △차녀 임승향 사위 한승수 손자 한경천 손녀 한경주(사위 브랜던)이 있다.

(박준호 기자)



다민족기도대회 설명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16년 다민족연합 기도대회 열린다

23일 오후 5시 애너하임 컨벤션센터

2016년 다민족 연합기도대회를 20여일 앞두고 이 행사를 준비하는 다민족 교계 지도자들이 지난 29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설명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준비모임에서는 다민족 연합기도회의 중요성을 알리고 준비상황을 재점검 했다.

오는 10월 23일(주) 오후 5시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연합기도대회는 "이 땅을 고치소서

(Heal Our Land)"란 주제로 한인들은 물론 다민족이 하나 되어 참여하는 대회로 특히 이번에는 이민 2세들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회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JAMA 대표)는 "세계기독교를 미국이 이끌어 왔으며 세계선교역시 미국이 앞장서왔다"고 언급한 후 "미국이 약해지면 대신할 나라가 없다"며 이번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강 목사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도움으로 공산화가 되지 않았으며 전후 미국교회들의 도움으로 식량 원조를 받았고 미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한국교회가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그 결과 한국은 강국이 됐으며 가장 많은 선교사 파송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 대회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는 "영적으로 침몰해가고 있는 미국이 회복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미국을 깨우자"고 전했다.

데이빗 안드레이드 목사(라인인더샌드 대표)는 이번 기도대회의 중요성에 대해 "이 때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하고 주께 부르짖자"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그동안 인랜드와 오랜 지카운티 지역의 목회자들과 학생·청년단체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어왔으며 10월5일 사우스베이 지역, 7일 남가주목사회 모임, 그리고 14일 동부LA지역 목회자들에게 기도대회 참여를 위한 설명회를 갖게 된다.

(박준호 기자)

복음의 증인된 소금과 빛 역할 강조

필라복음화대회 성료, 강사 고명진 목사

대필라델피아한인교회협의회(회장 안문균 목사)가 주최한 복음화대회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에서 열렸다.

대회장 안문균 목사는 "순서를 맡고 수고한 모든 분들과 우중에도 성향을 이룬 목회자와 성도들과 동포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첫날 안디옥교회의 활기찬 찬양 인도 후 최해근 목사(직전회장, 몽고메리교회) 인도로 김성철 목사(제1부회장, 예승장로교회) 대표기도, 영성장로교회 찬양대 찬양에 이어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강사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가 차분하고 섬세한 내용으로 눅 2:41-51을 본문으로 "예수의 탄생과 오신 목적"에 대해 강조, 성도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이석득 장로 현금 기도, 황준석 목사(증경회장, 큰믿음제일교회) 축도로 마쳤다.

둘째 날은 몽고메리교회 찬양 인

도 후 최형관 목사(증경회장, 낙원장로교회) 인도로 조병우 목사(등대감리교회, 이대위장) 기도, 필라쉐퍼드파이어 찬양 후 고명진 목사는 눅18:35-43을 본문으로 "응답받는 외침"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바디메오의 이야기 속에 각자를 돌아보며 모두가 바디메오의 기적을 체험하자"고 말했다. 안상의 장로(새한장로교회) 현금기도 후, 고택원 목사(증경회장, 새한장로교회) 축도로 마쳤다.

셋째 날은 오전 10시에 몽고메리교회에서 고명진 목사를 강사로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했다.

저녁 성회는 몽고메리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 후 이대우 목사(증경회장, 한빛성결교회) 인도로 박태문 목사(목사회증경회장, 서울중앙로교회) 기도 후 고명진 목사가 눅 19:28-40을 인용 "신앙 리셋"이란 제목으로 예루살렘 임성시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를 성도로 비유해서 성도들의 삶의 요소를 적절하

게 해석했다. 박상욱 장로(몽고메리교회) 현금 기도, 강승호 목사(증경회장, 순복음중앙교회) 축도로 마쳤다.

마지막 날은 구세군 찬양팀의 찬양인도 후 안문균 목사(회장, 주님의교회) 인도로 윤상철 목사(양의문교회) 기도 후 필라안디옥교회 찬양대 찬양이 있었으며 고명진 목사가 예레미야5:1을 인용,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 목사는 스크린을 통해 워싱턴, 헬렌켈러, 록펠러, 고흐 등 세계적 각계 각층의 인물들을 비추며 이들 한 사람들의 역할이 인류에 끼친 공적을 인용하고 결론은 예레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 받아 한 일을 소개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감을 강조, 복음의 증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많은 감동을 선사했다.

최승찬 장로(영생교회) 현금기도, 호성기 목사(증경회장, 필라 안디옥교회) 축도, 김영천 목사(총무, 한마음교회) 광고 후, 안디옥교회가 준비한 다과로 성회를 마쳤다.

(기사제공: 필라코협)

추모사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기둥이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엘리야
임동선 어른 목사님께서서는 불기둥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신 불기둥이셨습니다. 혹독한 노예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불기둥이셨습니다(출13:21). 청년시절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한 정치입국의 불기둥이셨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에게 처형되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동선아, 안심하게라.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던 예수님의 불(눅12:49)이 임동선 청년 가슴에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김일성의 손을 빌어 죽음의 삼팔선을 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하시면서 성령의 불기둥이 되셨습니다(행 2:1-3).

신학훈련도 철저히 받으셨습니다. 일제, 해방, 6.25전쟁의 혼란과 가난 속에서도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공부와 연구의 열정을 불태우셨습니다. 풀러신학대학원에서는 50대 후반 뒤늦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런 탐과 피를 쏟는 열정을 통하여 성경의 불기둥, 말씀의 불기둥이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은 물론 나무, 돌, 흙, 도랑의 불까지 모두 태운 엘리야 곧 우리 시대의 엘리야이셨습니다(왕상18:38).

락 안에 드는 위대한 말씀의 사랑이십니다.
임동선 어른 목사님은 교회목회의 불기둥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묵회 대명 곧 내 어린 양을 먹이라...내 양을 치라...내 양을 먹이라(요21:15-17)는 묵회대명을 십자가 지고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여주성결교회를 시작으로 부임하시는 교회마다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공군 군목으로서의 장병들의 생명과 나라를 지키는 불기둥이 되셨습니다. 특히 육해공군을 통틀어 뛰어 다니며 말씀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이정근 목사 (성결교회 원로목사)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동양선교교회를 설립하시면서 이 교회는 단숨에 해외로리안 디아스포라 최대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시절 동양선교교회는 실로 선교의 불기둥, 교육의 불기둥, 봉사의 불기둥이 항상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센터였습니다. 어른께서 바로 '목회자의 최고 표정'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셨던 풍성한 열매였습니다. "양 떼들은 목숨 걸고 자신들을 보살피는 목회자를 따르기 마련이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이다. 나도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 어른의 묵회 초년병 시절 바위 같은 결단이었습니 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니라"(요10:11)는 예수님의 묵회 대헌장을 목숨 걸고 실천하신 열매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면 목회자란 평신도건 누구나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임동선 어른 목사님은 선교의 불기둥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바울을 모범 삼으신 선교사이셨습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 55개 국가 1,200여 교회와 집회에 구원해내는 불, 민족과 국가를 바로 세우는 불, 지구마를 전체를 거둬들이는 불, 중풍으로 오래 누워계셨던 황재순 사모님을 따뜻하게 보살피셨던 사랑의 불...그 당시 서술이 시퍼렇던 이승만 대통령 면전에서 경무대부터 회개해야 한다고 하신 경고는 실로 불기둥 설교의 절정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 때에 그 말씀을 하늘의 무서운 경고로 알았더라면 4.19혁명의 비극은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겸손히 말한다 해도 어른 목사님은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서 다섯 손가

친교목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 뼈를 묻은 리빙스턴 선교사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구를 이끌고 남미 4개국 선교로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어른 목사님의 평생 기도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키셨습니다"(딤후4:7). 비록 사도 바울처럼 단숨에 목이 잘려지는 순교자의 길은 못 걸으셨지만 이번 목숨 건 선교여행은 어른 목사님을 '점진적 순교자'로 존경하기에 너

너합니다.
임동선 어른 목사님은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이 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손에 붙잡혀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온 지구 마를 뛰어다니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불기둥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존경스러운 어른 목사님을 추모하는 가장 바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임동선 어른 목사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불기둥, 복음을 전파하는 불기둥, 나라를 바로 세우는 불기둥,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거는 불기둥, 교회와 가정을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는 불기둥, 십자가를 지는 원수사랑의 불기둥이 되겠다는 뜨거운 결단을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임동선 어른 목사님께서 육신 안에 계실 때의 사역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혼사역은 계속 불기둥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 활발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어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은 그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그 사역은 계속하십니다."

2016년 10월 1일
임동선 목사 천국환송예배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기도문과 교독문제정을 위한 1차 모임 모습.

세기연 종교개혁 500주년 위원회

종교개혁주일 공동기도문, 교독문 제작 발표

예문작성위원: 홍영환, 이정근, 이상명, 이장민, 진유철, 조진모, 이학준, 박성근

세계한인기독인연합회(회장 장영춘 목사/이하 세기연)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1년 앞두고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의 신앙과 백과 개혁의지를 담은 종교개혁주일 공동기도문과 교독문을 작성하여 발표했다.

세기연은 '종교개혁 500주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영춘 회장을 위원장에 위촉하고 미주지역 교단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종교개혁

주일 예문작성위원회'를 구성, 이들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여 회합한 후 최종 검증을 거쳐 2개의 공동기도문과 2개의 교독문 예문을 완성, 발표했다.

예문 작성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환 목사(중앙루터교회, 루터교), 부위원장인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 성결교), 총무인 이상명 박사(미주장신대 총장, 장로교), 그리고 조진모 목사(필라델피아한인연합

교회, 장로교), 이장민 목사(LA연합감리교회, UMC),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순복음)가 각각 위원으로 위촉돼 예문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그동안 작성된 초안은 이학준 교수(풀러신학교)와 박성근 목사(LA한인침례교회, 침례교)의 검증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금년 종교개혁주일(10월 30일)을 앞두고 지난 주 발표된 것이다.

한편 세기연은 이 공동기도문이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 미주 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한인교회들이 매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Reformation Sunday)에 동일한 기도문과 교독문을 사용함으로써 한인교회의 정체성은 물론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기연은 각 소속 언론사들을 통해 이 공동기도문과 교독문을 다음 주부터 광고지면을 통해 널리 홍보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세기연 종교개혁 500주년 위원회는 500주년이 되는 내년도엔 '교회개혁선언문'과 교회개혁을 주제로 한 포럼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성자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담임목사 청빙

웨슬리안 교단 소속 새빛교회에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영주권/시민권 소유자로 감리교, 성결교 WEMA에서 안수받은 정규신학대학 이상 졸업, 목사안수 후 3년 이상 경력자. 이력서(사진, 학력, 목회경력, 일반경력), 목사안수증명서,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및 최종 학위증명서 각 1부, 목회비전계획서, 자기소개서(본인 및 사모 포함 가족사진), 최근 6개월 내 설교테이프 1편 등이 필요하다. 서류마감은 10월 31일까지. 서류는 이메일(andrew.chweh@gmail.com)로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내야 한다.

▲문의: andrew.chweh@gmail.com

뉴욕 기쁨과영광교회 설립기념 및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

뉴욕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 권금주 목사) 설립 15주년 기념 및 새성전입당 감사예배가 10월 23일(주) 오후 5시에 열린다. ▲문의: (646)270-9771, 247-8258

전도사 청빙

뉴욕한빛교회(담임 윤종훈 목사)가 유치부, 유초등부 전도사를 청빙한다. 사역시간은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절기별 행사와 VBS가 있다. 자격은 정규 신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로 교회 학교 영어사역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서류는 이력서, 신앙고백, 추천서 각 1통씩. ▲문의: charles.hyun.lee@gmail.com

샬롯장로교회 가을 부흥회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가을부흥회가 10월 28일(금)부터 30일(주)까지 장영출 목사를 강사로 개최된다. ▲문의: (704)529-0900



뉴욕목사회, 뮤지컬 '삼손' 관람

제 44회기 뉴욕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 하반기 행사인 뮤지컬 삼손 관람이 9월 27일 진행됐다. 목사들과 사모 총46명이 대형버스

로 필라델피아 랭카스터에 있는 밀레니엄 극장으로 이동했으며 즐거운 휴식과 안식의 시간을 보냈다. 사진은 밀레니엄 극장 앞에서의 기념촬영.



샬롯지역 참전용사위로회에 참석한 재향군인들이 만세삼창 하기 전에 포즈를 취했다.

샬롯장로교회, 참전용사위로회 개최

미군 참전용사 위로회가 지난달 24일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에서 I Pray for America, 킵넷, 한인회, 한인노인회, 월남참전용사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나성균 목사와 박형우 목사 사회로 전기현 장로의 후원과 점심대접으로 진행됐던 위로회는 District 12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레온 트리트(Leon Threat)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가족들, 월남참전 한국용사 7명이 참석했다. 특히 월남참전용사회 해외연합회장 이종성 회장이 샬롯지역을 방문했다가 참석해 참전용사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또 샬롯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수학 목사는 실제 참전용사로서 한국동란 시 수많은 미군들의 시신이 길옆에 쌓여 있는 곳을 직접 본 경험을 전하면서 미군 참전용사들에게 큰절을 해 참석자 모두에게 감동의 시간이 됐다. 마지막에는 레온 목사 인도로 참석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마누엘국악선교단의 찬양과 전통무용 공연은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임마누엘국악찬양단은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 뉴욕 순회공연을 앞두고 있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제2회 교회내 갈등 예방과 치유세미나 성료

제2회 교회내 갈등 예방과 치유 세미나가 "목회 승패는 갈등관리에 달려있다"라는 주제로 뉴욕에선 26일 뉴욕목양장로교회에서, 뉴저지에서는 27일 개신교수도원수도회에서 열렸다.

참석 목회자들은 이민목회현장에 중점을 둔 강의에서 혼자 힘들어했던 갈등문제해결에 방향감을 찾는데 큰 도움을 받은 유익한 세미나였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음에는 강의시간을 더 늘리고 사례분석과 실제 롤플레이(Role Play)도 해보기를 주문했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조남홍 박사(PCUSA 동남부지역 한인총무 16년)와 장학순 목사(미연합감리교세례전교부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장)가 맡았다. 세미나를 주관하고 진행한 미동부크리스천아카데미 김영호 목사는 교회내 갈등 문제는 방향을 잃게 하고, 성장의 잠재력 상실케 하고, 복음전도에 장애가 됨을 재인식하되 갈등이 불화를 공개적으로 표출해 숨겨진 문제를 해결해야 아픈 상처를 찾아내 치료하므로 새 비전을 세워 건강한 성장의 축진제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자세를 가지고 갈등예방과 치유세미나가 정기적으로 계속하겠다고 참가자들을 원하거나 갈등 문제 상담을 원하면 718-213-8645로 문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미동부크리스천아카데미)

“말씀으로 돌아가 생명 있고 회복 있게...”

뉴저지교협 제30회 정기총회, 새회장에 김종국 목사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제30회 정기총회가 9월 26일 오후 6시 뉴저지순복음교회(담임 이정환 목사)에서 열려 신입회장에 김종국 목사가 선출됐다.

신임 회장 김종국 목사는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지만 그럴 때 더욱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한다”며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다. 30회 뉴저지교협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명 있고 회복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그런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새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종국 목사(목사부회장: 윤병호 목사(뉴저지동산교회) △장로부회장: 김진수 장로(허드슨장로교회) △감사: 민경수 목사(세상의빛교회), 윤석래 장로(뉴저지연원, 웨스트민스트신학교에서 공부



뉴저지교협 신규 임원단. 왼쪽에서 세 번째가 신임 김종국 목사, 그 옆이 이의철 전임회장.

함정로교회) △서기: 이정환 목사(유일, 뉴저지순복음교회) △부서기 박순탁 목사(삼기교회) △회계 강영안 장로(뉴저지초대교회) △총무 미정.

신임 김종국 목사는 총신대학신학과, 합동신학대학원, 달라스신학원, 웨스트민스트신학교에서 공부

했다. 김 목사는 1985년 도미, 91년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1999년 새언약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속한 RCA 한인교회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1부 예배는 홍인석 목사(총무) 인도로 기도 윤석래 장로(부회장), 성경봉독 이정환 목사(서기), 찬양 뉴저지사모찬양단, 설교 유재도 목사(증경회장), 축도 정창수 목사(증경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재도 목사는 “두려워하지 말라”(행18:9-11)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며, “주님을 깊이 체험하기위해서는 스미스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며 스미스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퀸즈장로교회에서 선교바자회가 열렸다.

퀸즈장로교회 가을 선교바자회 성황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봄 가을로 개최하는 선교바자회가 지난 1일 본 교회 지하친교실과 파킹랏 등에서 열렸다.

이번 바자회에도 비빔밥, 튀김, 국수, 떡 등 각종 음식과 의류, 생활용품, 가정용품 등이 판매됐으며 전 교인이 준비했다.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모두 파송, 협력 선교사에게 전달된다.

퀸즈장로교회는 알마티퀸즈장로교회(관관중 선교사)를 비롯해 미주크리스천신문, 한인세계선교협의회, 단비미션인터내셔널, 캄보디아국제신학교와 미국내 국제장애인선교회, 캠퍼스, 할렘과 케냐, 파

키스탄, 터키, 탄자니아, 프랑스 등지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 또 지난여름에는 인도, 필라델피아, 케냐, 온두라스, 미국원주민, 중국, 캄보디아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한 바 있다.

한편 퀸즈장로교회는 23일(주) 1, 2, 3, 4부 전 예배를 통해 행복에의 초대 “Coming Home”(집으로) 초청 잔치를 갖는다. 이 행사를 위해 교인들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4가지 언어로 된 전도지를 만들어 노방전도를 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초대교회 기념음악회에서 김승희 목사가 개회기도 하고 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뉴욕초대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음악회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가 설립 35주년을 맞아 지난 2일 기념음악회를 열었다.

김승희 목사는 “지난 35년간을 하루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며 “교회의 위기 때마다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서 지지해주고 기도해준 성도들에게도 감사사를 표했다.

음악회는 김승희 목사의 개회기도 후 전주곡 The Place of Grace, Bayside의 연주(지휘, 이태영) 후 소프라노 김수정이 모차르트의 “기뻐하고 환호하라”, 케리그마 남성중창단이 “순례자의 합창”, “하나

님의 나팔소리”를 불렀다.

휴식 후 뉴욕초대교회 35년 발자취 동영상 상영됐으며 이어 비발디의 “글로리아(RV589)”를 연합찬양대와 성이연, 김수정, 박영경 솔리스트들이 이태영 지휘자(동교회 예루살렘성가대 지휘)의 지휘로 공연했다.

폐회기도는 안창의 목사가 했으며, 공연후 리셉션 파티가 친교실에서 개최됐다.

한편 동 교회는 23일(주) 오후 5시 설립 35주년 기념예배와 임직식을 갖는다. (유원정 기자)



제2회 교회내 갈등 예방과 치유세미나가 개신교수도원수도회에서 열렸다.

뉴욕교협 제 42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10월 31일 프라미스교회, 임후보자 등록 완료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 제 42회 정기총회가 10월 31일(월) 오전 10시부터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김홍석 목사



이만호 목사



김진 목사

이와 아울러 교협은 43회기 정, 부회장, 감사 임후보 등록을 공고했다. 임후보자는 도표와 같다.

△회장 후보 김홍석 목사(뉴욕대기비교회) (현)부회장, 서기, 부서기, 협동총무 역임

△부회장 후보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신년하례만찬준비위원장, 할렘루야대회준비위원장, 협동총무 역임

△부회장 후보 김진 목사(뉴욕대한국회) 노인분과위원장 역임

△평신도부회장 후보 이상호 안수집사(뉴욕성결교회) (현)이사장, (현)평신도부회장

△감사 후보 김영철 목사(순복음중앙교회) (현)감사, 경조분과위원장 역임

정기총회 총대는 교역자 대표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사모, 전도사 제외)으로 각 교회당 2명이다. 선거인 등록은 교협 웹사이트나 직접 방문, 우편을 통해 사전등록을 하고 총대 신분(해당교회 교인)이



이상호 안수집사



김영철 목사

확인되면 총회에서 총대로 인정받는다.

등록마감은 10월 17일(월) 오후 5시까지이며 회비도 납부해야 한다. 회비는 41회기, 42회기, 43회기의 3년치 회비가 납부돼 선거권이 부여된다.

한편 뉴욕교협 선관위(위원장 최창섭 목사)는 이번 선거에 금품이나 부정 등이 발견되면 후보자 박탈 및 당선자 박탈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후보자들에게 각서를 받은 바 있다.

임후보자 토론회는 17일(월) 오전 10시 교협 사무실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다락휴게실 오픈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다락휴게실 오픈

뉴욕교협 건물 3층에 자리한 다락휴게실이 지난 29일 오픈식을 가졌다. “교협 다락 휴게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화와 쉼이 있고, 커피향기와 사람향기와 예수향기가 흘러나는 교협 다락 휴게실”이라는 배너가 붙었다.

임원들과 뉴욕교계 목회자 및 장로연합회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오픈식에서 회장 이종명 목사는 “교협건물을 이전하고 3층 공간을 보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뉴욕 목사님이나 교인

들이 만나서 편히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락방휴게실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언제든지 오셔서 쉼과 교제를 나누기 바란다. 커피와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락방휴게실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픈한다.

한편 이날 뉴욕교협은 회기 마감을 앞두고 구제단체 등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유원정 기자)

'예배가 이끄는 삶' 주제 LA 글로벌 워십 컨퍼런스 2016

LA 글로벌 워십 컨퍼런스 2016가 '예배가 이끄는 삶'(The Worship Driven Life)(롬12:1-2)이라는 주제로 10월 1일 오전 10시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LA글로벌워십컨퍼런스에서 강사로 나선 정종원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워십리더코리아(대표 가진수)와 글로벌워십미니스트리 공동주최로 열린 컨퍼런스는 그렉쉬어 교수(칼빈대학교, 아트오브 워십 저자)와 셸리 모겐셀라 교수("이것이 예배다" 저자)가 주강사로 나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청중은 누구이며 예배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 강의를 했다.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가 '다사포라와 워십공동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인도했다. 선택강의는 △이상훈 교수가 '선교적 교회의 예배와 사역모델' △조

나란 리 목사가 '열린 예배의 진실과 오해-개성 만점 열린예배 만들기' △지명현 목사가 '예배인도의 이론과 실제' △이전 목사가 '복음

주의 예배 및 경배와 찬양' △최승목 목사가 '예배 속의 커뮤니케이션' △심형진 전도사가 '삶의 예배와 예배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인도했다.

주최 찬양집회는 심형진 전도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LA 글로벌워십 컨퍼런스 관계자는 "이번에 열리는 컨퍼런스는 미국에서 처음 열리는 본격적인 한국 디아스포라 예배 컨퍼런스"라 소개하고 "그동안 예배와 관련한 세미나가 간혹 열렸지만 예배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다양한 예배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심도 깊은 컨퍼런스는 처음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예배의 이론과 신학, 예배의 실제와 경험, 그리고 한국교회 공동체의 예배모델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앞으로 매년 10월 첫 주에 글로벌워십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CHTV18.88 개국 1주년 및 크리스천헤럴드 창립 39주년 기념 찬양제에서 전출연자들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CHTV18.88 개국1주년 및 크리스천헤럴드 창립 39주년 기념 찬양제 성대하게 열려

CHTV 개국 1주년 및 크리스천헤럴드 창립 39주년 기념 찬양제가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에서 2일 오후 5시에 성황리에 열렸다.

정요한 목사(사장)의 사회와 양준호 발행인의 인사말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이창건 장로(남가주장로회 회장)의 기도와 신동철 목사(나성한인교회)의 설교 순서가 있었다. 신 목사는 시편 18편 28-29절을 본문으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신 목사는 "본문에는 다윗의 삶 전체에 대한 혁신적인 내용이 기록돼있다. 내가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현실을 피하

거나 거부하지 말고, 다윗처럼 담을 넘는 용기와 신앙으로 살면서 평생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2부 찬양제는 나성한인교회, Bliss Youth Orchestra, 남가주장로목사부부찬양단, 소프라노 젠 리, CHTV여성코랄, 남가주장로성가단 등이 출연했으며 연합으로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함께 부른 뒤 마쳤다.

양준호 발행인은 "크리스천헤럴드 창립 39주년 CHTV개국 1주년 행사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목성연 글로벌서서 강의에서 문희원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OC 평연 주최 제36회 교계연합 성가제에서 전 출연자들이 연합찬양하고 있다

미주목성연 글로벌서서 강의, 강사 문희원 목사

미주목회자성경연구원(대표 문희원 목사) 글로벌서서 강의 UBM 교회(담임 앤드류김 목사)에서 9월 26일 오전 10시 개최됐다.

문희원 목사는 "글로벌서서는 옥중 서신이며 바울이 로마감옥에서 쓴 책이다. 글로벌서서의 핵심은 만유의 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했다.

문 목사는 "바울신학의 특징은

전반부는 원리를 이야기하며 동기 부여를 하며, 후반부는 원리를 근거로 해서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며 "오늘날 교회가 성장목회를 하다 보니 아직 자격도 되지 않은 자들에게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주게 됐다. 그러다보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것을 성직자들의 몫이라 여기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준호 기자)

OC평연 주최 제36회 교계연합 성가제 다민족연합구국기도회 후원 위해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윤우경 집사) 주최 제36회 교계연합 성가제가 10월 1일 오후 6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오는 10월 23일 애나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다민족연합 구국기도회 후원을 위해 열린 교계연합 성가제는 감사한인교회 임마누엘성가대(지휘 류지원), 그랜드 페스티벌 여성합창단(지휘 강민석), 베델한인교회 브니엘 성가대(지휘 차은하), 나성한인교회 브니엘 여성합창단(지휘 김경희), KYVC 모닝스타 청소년합창단(지휘 김경희), 남가주사랑의교회 글로벌리아 찬양대(지휘 이영진), CTS여성합

창단(지휘 김명옥), 은혜한인교회 임마누엘 성가대(지휘 임중혁)이 출연하여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이날 찬양제는 전출연자들이 무대에 올라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부른 뒤 노정도 목사(평연 자문위원)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성가제는 미국의 회복과 민족을 위해 미주 중보기도연합회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호우 목사(OC교협 수석부회장, 다민족 연합구국기도회 지역준비위원장)가 기도인도를 했다.

(박준호 기자)



거리의 교회, 산울교회, 사랑제일교회, 한미음선교교회가 연합으로 LA다운타운의 홈리스들을 상대로 사역했다

LA 다운타운 홈리스 섬김이 사역 거리교회, 산울교회, 사랑제일교회, 한미음선교교회

거리교회(전예인 목사)와 산울교회(김홍철 목사), 사랑제일교회(정종일 목사), 한미음선교교회(김성기 목사) 네 교회가 연합으로 10월 1일 아침 LA다운타운의 홈리스들을 상대로 찬송연주와 함께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거리교회 홈리스 섬김이 사역은 매일 진행되고 있다. 김홍철 목사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로 지역 사회를 섬기면서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교회들이 연합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학생들이 악기연주로 섬김의 봉사를 함으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영향력이 있는 섬김이 자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울교회 홈리스 섬김이 사역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아침 7시30분-8시, 37가와 4가 사이, Boyd st, LA에 진행된다.

▲문의: (213)718-6630

(기사제공: 산울교회)



제3회 찬송가 보급, 찬양사역자, 찬양팀들을 돕기 위한 찬양선교음악회에서 참가자들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찬양사역자도 선교사...하나님 기쁘시게 제3회 찬송가 보급... 돕기 찬양선교음악회

제3회 찬송가 보급, 찬양사역자, 찬양팀들을 돕기 위한 찬양선교음악회가 2일 오후 6시 생명샘교회에서 주사랑선교교회(담임 이재근 목사) 주최로 열렸다.

이재근 목사의 사회로 열린 찬양선교음악회는 LA남성선교합창단(지휘 원영진), 갯스이미지(대표 변웅진 목사), 박트리오, 바리톤 장상근, 소노로스 싱어즈(음악감독 홍순태), KAM코랄(지휘 이수정 집사)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이날 찬양선교음악회는 전출연자들이 소노로스 싱어즈의 이종현 집사의 지휘에 맞춰 '어찌 날 위함 이온지'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른 뒤 신한국 목사(에반

겔리아대학교 총장)의 축복기도로 마쳤다.

이재근 목사는 "찬양을 하면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능력의 문 영안의 문이 열린다. 찬양은 예배의 시작이며 첫걸음이다"라 말하며 "선교가 영적 전쟁이라면 찬양도 영적 전쟁이고 선교가 복음을 통한 영혼구원이라면 찬양으로 마음 문이 열려야 말씀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찬양도 선교이며 찬양사역자도 선교사라 할 수 있다. 선교적 차원에서 찬양사역자들이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미국복장로회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 정신 경신 찬양제에서 남가주 정신동문 코러스와 남가주 경신코랄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미국복장로회 한국선교기념 정신 경신 찬양제

미국복장로회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 정신 경신 찬양제가 9월 30일 오후 8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남가주 정신동문 코러스(단장 임정균)와 남가주 경신코랄(단장 나기홍) 주최로 개최됐다.

김석연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찬양제는 남가주경신코랄(지휘 장진영)과 정신동문 코러스(지휘 백낙금이) 무대에 올라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거룩한 곳' 등 성가곡과 '고향이 봄', '님이 오시는

지' 등 가곡, 그리고 '너를 사랑해'와 '항수' 등 대중가요를 불렀으며 하모니카 연주자 최윤석 씨와 국악가수 심현정 씨가 찬조 출연해 공연을 빛냈다.

이날 찬양제는 연합합창으로 '주께로 오라'를 백낙금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그리고 '그가 & 살아계신 주'를 장진영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부른 뒤 김희숙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LA배재코랄 창단 25주년 연주회 성료

LA배재코랄 창단 25주년 기념 서울배재코랄 초청 합동연주회가 2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목사)에서 백경환 목사의 지도로 막을 올렸다.

서울배재코랄(단장 전창길 지휘 안창훈)과 LA배재코랄(단장 김동천 지휘 유의철) 60여명의 단원이 함께 무대에 올라 '즐거운 나의집', '도라지꽃', '사랑의 노래'를 오프닝 곡으로 들려주었으며 람미선과이어(단장 한순자 지휘 김재신)와 남

가주한인합창단(단장 김정자 지휘 유의철)이 특별 출연하여 찬양과 가곡을 선사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서울, LA배재 코랄은 '갈색노동자'와 한지현씨가 편곡한 '돌아와요 부산항', '바람'을 들려주어 박수갈채와 앙코르 송을 요청 받아 '협한 십자가 능력있네'로 답한 후 오경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서울과 LA배재 코랄 단원들이 오프닝송을 들려주는 모습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규명을 요청하기 위한 LA 동포 연대집회' 민중대결기 대회가 LA총영사관에서 열렸

'LA동포 연대집회' 민중대결기 대회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규명 요청

LA 한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7일 'LA 동포 연대집회' 민중대결기 대회가 벌몬트 광장과 LA 총영사관에서 열렸다. LA시국회의, 사람사는세상, 내일여는사람들 등의 시민단체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LA동포 연대집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따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헌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날 박신화 목사(평화교회)는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사역할 때였다. 당시 어떤 시인에 대한 부검을 하게 됐는데, 미국의 경우 부검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하게 된다. 만약 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

현도 없이 사망할 경우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부검이 실시된다. 하지만 백남기 농민의 경우 가족동의도 없이 부검 시도는 대한민국정부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한 회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 하는데, 물대포로 인해 사람을 죽게 하고 또한 가족 동의 없이 부검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선진국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참가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벌몬트 광장에서 LA총영사관까지 평화행진을 가진 후 해산했다.

(박준호 기자)

주요 장로교단 총회 회무 처리

예장합동 제101회 총회가 서울 강남구 충현교회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28일 회무에서 총대들은 '한기총-한교연 통합 추진'에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은 28일 총신교회에서 이어진 제101회 총회 셋째 날 회의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통합 추진'에 힘을 보

교단 산하 교회들의 자립지원 전담기구로 '교회자립개발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종전 교회자립지원위원회와 교회자립지원실행위원회의 활동은 개발원으로 통합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이 그 동안 이단성 의혹을 받아왔던 개인 및 매체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천명하고 개혁주의 신학 확립을 강조

어떤 형태로든 동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에 대해서는 "황씨가 자신의 언론매체인 로앤처치를 통해 수많은 이단 옹호 기사를 게재할 뿐 아니라 건전한 이단연구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연구결과 그의 주장은 개혁주의 신학적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로앤처치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을 일체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장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예장합동, 신우주·홍혜선·황규학 이단성 검증 예장통합, '신우주 이단성 있다' 인터콥 '예의주시 및 참여 자제' 유지

대기로 결의했다.

총회 교단연합교류위원회(위원장 박무용 목사)는 "한기총과 한교연 통폐합을 포함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업무 일체를 총회 임원회와 직전 총회장이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원했다. 총대들은 이견 없이 청원을 허락했다. 지난 회기 한국교회 7대 교단 총회장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예장합동은 총회선거관리규정을 개정, 총회장 후보로 등록 가능한 연령을 현행 만 60세 이상에서 만 57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목사부총회장 임후보는 2회, 기관장은 5회로 제한하기로 결의했다. 기관장의 범주에는 총신대 재단이사장과 총장을 포함시켰다.

총회 넷째 날인 29일 저녁 신학부 신우주, 홍혜선, 황규학씨의 이단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에 나선 신학부 서기 오정호(대전 새로남교회) 목사는 "신씨는 성경을 '방언'이라 하고 방언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방언 통역'이며 그것이 곧 '예언'이라고 하여 자신의 성경해석을 예언처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교회와 성도들이 신씨의 이단성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동조, 헌금하는 일을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씨에 대해서는 "잘못된 예언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미국 태국 필리핀 등 피난처를 찾아가는 등 비상식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홍씨의 극단적 신비주의 형태의 직통계시를 추종하거나

은 안산제일교회(고훈 목사)에서 열린 제101회 총회 셋째 날 회의에서 '은혜로교회 신우주씨는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다. 또 최바울(인터콥)씨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및 참여 자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오후에는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과 조일래 한교연 대표회장이 함께 방문, "한국교회가 하나로 통합하는 데 예장통합 교단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총회 여성위원회가 '66개 노회별로 여성 총대 1명씩 세우자'고 청원한 여성총대 할당제는 토론 끝에 부결됐다.

전날 총회에서 신학대 총장의 정년엔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한편 장로회신학대 총장에 임성민, 호남신학대 총장에 최홍진, 한일장신대 총장에 구춘서 교수를 각각 인준했다.

"3개 기관 주도 한국교회 연합에 적극 동참" 한교연 비공개 임원회서 밝혀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지난 30일 비공개 임원회의를 갖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교연,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등 3개 연합기관이 주도하는 한국교회 연합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오던 한교연이 적극 동참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 운동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교연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일은 한교연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새로운 통합 논의를 적극 추진하되 한교연 한기총 통합을 비롯, 한국교회 연합 추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경우 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과정을 거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기총 한교연 교단장회의 등 3개 연합기관 대표들은 이날 중으로 한국교회 연합방안을 마련한 뒤 11월말까지 연합을 완료하기로 하겠다고 지난 8월 선언했다. 이 자리에 조일래 한교연 대표회장도 참석했지만 한교연 내에선 공식 논의된 바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가 팽배해 있었다. 이단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논의도 시작하지 않는다는 강경기류도 여전했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도 3개 연합기관이 주도하는 한국교회 연합 추진과 관련, 한교연 임원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 대표회장은 "급박한 통합 논의과정에서 임원회를 다시 열어 재결의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다"며 공식 사과했고, 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추후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경우 다시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이단 문제에 대한 입장도 유연해졌다. 한교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제5-6차 임원회 결의(선 이단 문제 해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단 배제'라는 기존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일 뿐,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한 논의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라고 임원회 참석자는 전했다.

한교연의 분위기가 통합에 적극 협력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은 주요 교단 정기총회에서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합, 대신,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은 최근 열린 총회에서 한기총-한교연 통합 추진에 협력하거나 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한교연 관계자는 "한교연이 한국교회의 연합 추진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은 연합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조 대표회장이 임원회 결의 없이 추진한 데 대한 문제제기였다"면서 "앞으로 한국교회 연합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감 목회자·평신도 "교단, 동성애 단호 대처를"

'성결한웨슬리안회복운동본부' 회견서 "옹호시위 미온적" 비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소속 일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교단 본부를 상대로 동성애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감 목회자와 평신도들로 구성된 '성결한 웨슬리안 회복 운동본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기감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단 본부는 감리회의 동성애 지지 여론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성애 지지는 악한 행위"라며 "교단은 동성애 문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 서서

적인 답을 내려 각 교회에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교단 본부 앞에서 열린 동성애 옹호 시위에 대해 교단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월 '성소수자 탄압 장정에 반대하는 감리교 신학생 및 전도사 모임'은 기감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감이 동성애에 찬성·동조하는 목회자를 징계기로 한 것에 반발했다. 이들은 "우리는 동성애자들에게 죄를 묻는 교단을 거부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운동본부는 "전용재 감독회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한 신학생 등이 성경에 입각한 바른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세미나 등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명재(울산대은교회) 목사는 "동성애에 동조하는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했다는 걸 근거로 들지만 이것은 잘못된 신학"이라며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것은 성결한 거룩함"이라고 강조했다.

교회 문화시설 주 이용자는 교인들

지역사회 섬김·소통 바랐는데...예장통합 조사

지역 교회 내 카페·도서관 같은 문화 공간 2곳 중 1곳은 주민들보다 교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공동체와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이들 문화복지 시설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문화법임(이사장 서정오 목사)은 최근 교단 소속 교회 가운데 문화복합체를 펼치고 있는 서울지역 교회 114곳을 대상으로 관련 시설 및 자원 현황을 설문 조사한 '2016 문화복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에서 '문화복지 시설의 주이용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 교인들'(24.2%) '교인이 지역주민보다 더 많이 이용한다'(24.8%) 등 교인이 주이용자라는 응답이 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지역주민이 교인들보다 더 많이 이용한다'는 14.5%, '대부분 지역주민이거나 외부인'이라는 응답은 8.8%였다. 연구·분석을 총괄한 성석환 장신대(기독교와문화) 교수는 "교회마다 문화적 시설은 갖췄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교인들의 필요를 넘어 지역사회에의 필요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도록 문화복지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페와 도서관, 공연장, 평생교육원(구 문화센터) 등 4개 문화시설 가운데 주민들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설은 평생교육원이었다. 성 교수는 "평생교육원의 경우, 예술·생활 강좌 등으로 지역주민과 접촉면을 넓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교회의 문화시설 유형 중에는 카페(43.6%)가 가장 많았고 도서관

(19.6%), 평생교육원(19.1%), 공연장(5.4%) 등이 뒤를 이었다. 카페의 경우, 교회 카페 중 57.3%가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유급직원 없이 전문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곳(42.5%)이 가장 많았다. 카페운영 수익금의 사용처는 지역 사회를 위한 사용(35.6%), 해외선교 지원(21.2%), 외부기관 지원(15.2%) 등의 순이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회 카페의 용도로는 지역주민들의 각종 모임(31.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세미나와 연주(전시)회 개최가 각각 22.9%를 차지했다.

성 교수는 "교회가 운영 중인 카페나 도서관, 공연장 등은 대부분 교인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문화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해당 전문가 채용,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과 이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도 요구된다고 성 교수는 덧붙였다.

"개혁·갱신" 기독교청년들 30개조 반박문

루터 95개조 반박문 본 때 목회자 성추문·금권선거 비판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는 2일 '한국교회에 청년이 말한다'를 제목으로 30개조 반박문을 발표하고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제시한 95개조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통로가 된 것을 본 뜬 것이다.

청년들은 '공교회성 회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개교회의 성장에만 몰두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진정으로 함께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고 있다"며 "교회의 사명은 개교회의 양적 성장 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

할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권선거 등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은 교회의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며 "교회는 이를 타파하고 세상 속에 도덕적 바로미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교회는 지나치게 편향적이며 기독교에 결탁한 자세를 취하고 그것이 곧 교회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말한다"며 "이는 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부 목회자의 성추문과 관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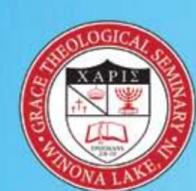
서도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이를 자행한 이들이 감당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말문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반신반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목회자 수급 불균형과 관련,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며 대안목회와 기관목회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 투명성 확보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교회의 위기에 대한 대책마련도 당부했다.

EYCK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취지에서 반박문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On Campus Courses

2016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19-23(9월 19 -23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s(세계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Sept 26-30(9월 26 -30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Oct 3-7 (10월 3-7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도소 선교칼럼 (6)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사탄 숭배자의 회심

교도소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를 드립니다. 교도소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므로 그곳에서 사역하는 데에는 많은 기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죄가 많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며 저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은 제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Bill(가명)이라는 재소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 체험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탄을 숭배하느라 자신의 몸을 자해해서 피를 내곤 했습니다. 그는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교도소 채플린이라는 이유에서인지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미워하지요? 나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있다고 표현하는 그에게 성경이 필요하냐고 물으며 당신이 내 책 "예수님과 걷는 길"을 읽게 될 거라고 부드럽게 농담같이 웃으며 그를 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다리를 찢어 피를 내어서 사탄숭배를 했기 때문에 몸이 점점 약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그가 몸을 더 이상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병실에 속한 독방에 감금하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을 자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 대해 이곳은 종교의식을 압박하는 곳이라며 저와 교도소 소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토록 그는 너무나 강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으며 저 역시 그를 만날 때마다 마귀의 공격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8월 26일, 그분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교도소의 정신과 상담사 두 분이 저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빌(Bill)을 아느냐고 하면서 그에게는 기독교인 어머니가 있으며 그가 변화된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달라고

하는데 없어서 주지 못했으니 저에게 직접 성경을 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 성경과 재소자들의 간증집과 "예수님과 걷는 길"을 가지고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 간증집에는 사탄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강력한 신앙간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빌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자신의 할아버지와 환한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와 전화 통화할 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한 것으로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며칠 전 자해한 다리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목숨이 위급한 상태에 이르러 응급으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방문했을 때 성경을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잠깐 3장 1-8절을 읽어달라고 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주 눈물이 나온다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라고 말해주며 그분께 마음을 열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질문도 하며 침묵도 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게 알려달라고 하니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탄을 숭배한 사람도 용서 받을 수 있는냐는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고 확신있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탄이 그의 과거를 이용해 하나님은 그런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거짓말하며 그를 정죄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더욱 간증집과 성경을 읽을 것을 그에게 권했

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저항적이었던 모습과는 달리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전에 빌하고 이야기 할 때에는 달리 그날은 마귀의 공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 오신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와의 대화를 마치고 너무나 기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또 하셨습니다. 저가 상상치도 못했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교도소 선교에 불러주신 주님께 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의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사탄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참 하나님을 만났기에 전심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며 훗날 열심히 전도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충성스런 종이 되도록 또 그와 같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믿습니다.

그 후 저는 그분을 방문해서 신앙간증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써보겠다고 합니다.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서 시작된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는 비영리단체로서 계속적으로 재소자들의 신앙간증을 모아 여러 종류의 책들을 출판하며 그 서적들을 무료로 교도소와 노숙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재소자들의 간증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를 위해서 또 주님을 모르는 채 고통하는 전 세계의 재소자들이 하나님을 모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yonghui.mcdonald@gmail.com

선교 편지

파라과이

2016년이 벌써 반년이 지나갑니다. 변함없이 파라과이를 향한 기도꾼들의 기도와 정성어린 선교헌금을 하시는 교회와 형제자매들 머리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역지에 성령의 바람이 일고 더욱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 2016 기독교 예술 유, 초, 중, 고등학교는 겨울 방학을 마치고 2학기 개학을 하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옆에 신형 시설이 초 현대식 고등학교가 2곳 생겨서 타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2.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대학교 수 자격 연수 및 미래 설계 연구토론회 세미나를 8월 15-16일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교수의 기본 자격은? 강의를 어떻게 알아듣기 쉽게 가르칠까? 전 과목 프로젝트 사용하기. 한학기 교육 플랜 제출. 우리 신학대학의 특징을 살려 가르치고, 영성과 지적이 겸한 교수,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의 유대관계, 다른 신학교와의 유대관계, 앞으로 학교의 발전 문제, 한국 선교사들이 20-30년 후에 귀국하면 어떻게 실질적 이사가 될지? 교회와 교단 참여 문제, 신학교 주일 제정, 교회의 발전을 위한 교역자 로테이션 문제 등 등 심도깊게 토론했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3. 어린이날(어린이주일) 행사를 성대히 하였습니다. 파라과이는 어린이날이나 어버이주일을 거대하게 합니다. 세 번째 개척한 벨렌교회에서 8월 21일 주일날 어린이 주일을 지키며 초대하였는데 많은 어린이, 어른들이 모였고 교사들이 아주 준비를 잘하여 어린이들을 기쁘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생생활 개선을 위하여 치솔과 치약을 준비하여 각 개인 하나씩 선물로 나누어주었습니다.

4. 겨울성경학교 및 청소년수련회를 할렐루야교회, 벨렌교회, 아멘교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부 학생들이 2박3일간 우리 할렐루야교회서 겨울수련회를 하며 우리 집에서 숙박을 하며 심도깊은 기도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프로

그램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잘 배워 어린이주일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였습니다.

5. 기도제목

- 1) 신학교 기숙사 신축 30만불을 놓고 기도중입니다. 타국에서 학사증을 취득하기 위해 문이 이곳 저곳서 오는데 기숙사가 없어 학생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 2) 전도를 많이 하기 위하여 도전적인 전도지와 물건(만개)을 계획 중인데 잘 제작되도록.
- 3)파라과이장로교신학대학, 기독교예술유중고



등학교가 은혜 중에 2016학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7학년도에 더욱 보완 진행하고 학생들이 많이 모집되도록.

4)GP5권역 대표로서 올해 마무리를 잘하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한 파라과이에서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 드립니다.
amorr1004@hanmail.ne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살롬의 교육학(7)

Shalom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교수)

예수선생님이 가르치실 때에...

자비를 베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그는 주님을 선생님이로 불렀지만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진정 모르는 것을 겸손히 묻는 자세가 아니라 교사를 때보는 생각으로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전문적인 율법사였기에 율법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없었다. 반면 그가 생각하기에 주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어수룩한 촌사람, 그리고 학교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무식한 자로 어찌 율법을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게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며 그럴듯한 질문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 태도를 주님이 모르실리 없다. 그런 주님이 오히려 되묻는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왜 주님은 되물으셨을까? 교육의 효과는 남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스스로 발견하는데 있다. 남이 지적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 과시를 위한 좋은 기회가 온 것으로 알고 신명기 6:5, 레위기 19:18 말씀을 줄줄이 불어댔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까?" 의기양양하고 있던 그를 주님이 칭찬하신다. "네 대답이 옳다." 그가 우쭐하고 있을 때, 그러나, 주님은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신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말인가?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아는데 그치지 말고 적용하라는 것이다. 말씀은 실행하여야 하고 진리는 구체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모세오경을 달달 외고 있어도 그것이 삶속에 녹아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신 이유가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마23:3).

주님에게 한방 당했다고 생각한 그 율법사가 다시 질문한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어리석거나 잘못된 질문은 없다. 다만 이 경우처럼 질문자의 잘못된 의도가 있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율법사가 질문한 것은 그가 이웃의 개념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이웃을 너무나 잘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눅18:9-14)를 기억하는가?

바리새인은 그의 옳음을 자랑하고 있다. "하나님, 나는 이웃을 너무 사랑하여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이들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를 드림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나를 축복하여 주심이 마땅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였을까? 왜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는가?

주님의 교육방법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사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양분되고 불신앙이 편만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4년 앗수르에 정복당하여 멸망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북쪽 땅 역시 이방인들이 강제로 이주하

주님의 4단계 교육방법론:

- 1- '가르칠만한 순간' 붙잡으며 학습에 대한 내적자각 생기게
- 2- '핵심적 질문' 통해 생각, 지식, 태도 점검하고 학습동기부여
- 3- 예화 등 통해 문제 통찰하고 스스로 해결안 찾도록
- 4- 배운 내용 반드시 실천에 옮기도록 동기부여 시켜야

이런 종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삶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는 사람이다. 나 중심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며 정죄한다.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주님께 질문하기 전에 이 율법사는 대답을 가지고 있다. 이웃이란 동료 유대인을 말하는 것임을 그는 오래전부터 배워왔기 때문이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웃이란 오로지 유대인만을 의미했고 그들은 조상대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다. 그런데 주님은 달랐다. 이웃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함을 그는 가르치고 싶었다. 바로 그런 교육이 일어나는 시점을 교육학에서는 '가르칠만한 순간' (teachable moment)이라고 부른다.

사도바울이 아덴에서 행한 설교를 기억하는가? 그는 그 도시 어디서나 세워져 있는 우상을 기뻐하는 무수한 단을 보았다. 심지어 그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행17:23). 바로 이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전력이 바로 teachable moment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학습의 기회를 포착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선생님이셨다. 친숙한 개념을 통하여 한 단계 높은 개념을 학습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행하신 교육의 첫 번째 성공 요소이다.

이웃이라는 개념(그 율법사가 이미 알고 있었던)을 통하여 주님은 그가 원하시는 새로운 이웃이라는 개념을 가르치신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

여 살게 된다. 그래서 남쪽 유다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동족으로 간주하지 아니하였고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미움과 갈등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넘었다. 오죽했으면 당시 가장 일반적인 기도가 "주님 사마리아인들에게 부활이 없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을까?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인 역사가 요세프스는 두 민족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두 사건을 그의 역사책에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첫 번째는 AD6-9년경, 몇 명의 사마리아인들이 비밀리에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느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다가 발견되어 잡히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죽이고 성전을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뼈를 갈아 뿌렸다고 한다.

두 번째 사건은 AD51년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려 멀리서 온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마을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려다가 그곳 사마리아 사람들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를 안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신고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게 되자 분노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로 쳐들어가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마을을 불태웠다고 한다. 이러한 두 민족 간 극심한 분노와 적대감정을 주님은 알고 있었을 터, 바로 여기에서 주님은 이웃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의 교육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 주님은 직접 해답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절대로 정답을 바로 말하

는 저급한 교육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 대신 주님은 이야기, 우화, 은유적 방법을 통해 가르치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주님은 학습자가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흔히 이야기하는 발견학습은 이미 주님이 성공적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아마도 주님은 이렇게 시작하셨는지 모른다. "내가 이야기하나 해줄까? 잘 들어봐.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지.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시는 거야. 아 이제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거들떠보기도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았겠어?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조금 후 레위인이 오는 것을 보았지. 너무 기뻐서 이제는 살았구나하고 생각했지. 한데 웬걸, 이사람 역시 본체만체 그냥 저쪽으로 비켜서 종종걸음으로 사라져 버렸지."

주님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동료 유대인들이라는 틀을 깨버리고 싶으셨다. 제사장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리더 아닌가?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 성전

부른다. 그 질문을 듣고 이 율법사는 무어라 응답했을까? 아마도 그는 자기가 배워왔던 과거의 지식과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새로운 개념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교육이 바로 그런 것이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개념, 지식,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교육심리학자인 Jean Piaget는 이를 disequilibrium의 과정이라고 이름 지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익숙했던 것(equilibrium)을 잠시 혼란에 빠뜨려(disequilibrium) 새로운 수준으로 한 단계 높이는 과정이라고.

그 율법사는 과거에 오직 유대인만이 그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그가 미워했고 싫어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마침내 통찰할 수 있었다.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누가 이웃이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자신의 답(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라고)을 바로 알려 주었더라면 이러한 극적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아닐 것이다. 이러한 예화, 이야기, 우

화 등을 통하여 율법사는 자기가 스스로 통찰하였고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신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이다. 교육은 배운 바를 실행에 옮기는데 그 생명이 있다.

4단계 교육방법 요약

필자가 성경을 읽을수록 느껴지는 것이 주님은 위대한 교육자라는 사실이다. 그는 누구와도 대화하셨고 어떤 상황이든 편안하셨다. 창녀도, 어린 아이도, 세리도, 장애인도 모두 환영하셨고 가장 쉽게 가장 명확하게 교육시키셨다. 앞으로 살롱에 기반한 주님의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눌 것이다. 다만 오늘은 주님이 택하신 네 단계의 교육방법론을 교회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글을 마치도록 한다.

제 1단계: teachable moment를 확실하게 붙잡으면서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내적 자각이 생기게 할 것. 2단계: 핵심적인 질문(critical question)을 통하여 학습자의 생각, 지식, 태도를 점검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것. 3단계: 우화, 이야기, 예화 등 학습자가 잘 이해하는 상황을 통하여 학습자가 문제를 통찰하고 해결안을 스스로 찾도록 할 것. 4단계: 배운 내용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도록 동기부여를 시킬 것.

hlee0414@gmail.com (계속)



전도용품 창립 기념품 단체 티셔츠 상패, 배너 제작

프린팅 & 프로모션 us.87sangin.com

PRINTING & PROMOTION

FREE SHIPPING ON ALL ORDERS

한국서적 & 판촉상인us

Hankook Books & 87sangin US

전화: 718.762.2000

161-21 29th Ave. Flushing, NY 11358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2) 자녀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며 관심을 보이며 이해, 격려, 칭찬을 많이 하라
 자녀들 앞에서 목사라는 권위와 위엄을 내세우지 말고 친구처럼 대화하며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올바르게 잡아준다.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교리나 신앙이 보수가 아니라 자기 고집이 보수인 자들이 많다. 필자의 아들 재민이는 가끔 아빠를 부를 때에 "Hey Dude"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내가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 그러나 아들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에만 그렇게 부르다가 하였다. 아빠가 자기와 친한 친구가 되어주어 친구처럼 대화를 할 수 있어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3) 자녀들 앞에서 질실 할 것
 부모가 교회에서 보이는 태도와 집에 와서 보이는 태도가 다를 때 부모의 위선적인 삶에 반발하기 쉽다. 자녀들 앞에서 노력하고 실수한 것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빌자. 그러한 가운데서 자녀들은 부모를 더 신뢰하고 존경하게 된다.

4) 자녀들 앞에서 표정관리 잘할 것
 부모님들이 교회의 일로 스트레스 받는 만큼 자녀들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야 한다. 자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희생에 대해 싫어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안 된다.

7) 자녀들의 어려운 요청에 무조건 '안돼' 하지 말자
 자녀들이 무슨 요구를 할 때 무조건 '안돼'하고 대답하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거나 또는 반항할 수 있다. "기도해보고 알려줄게" 아니면 "아빠와 의논해보고 알려줄게" 하면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대답해주고 일단 대답한 일에 대해서 약속을 꼭 지켜서 자녀들이 신뢰감을 갖도록 한다.

8)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자
 식구들과 의논해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낱자를 정해놓고 가정예배를 꼭 드리도록 하자.

어린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는 간단하게 드린다. 필자의 남편 목사는 집에 없을 때가 많다. 부흥회를 인도하려 출타를 하던가 아니면 교회에서 회의가 있어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니 사모인 내가 가정예배를 인도해야 한다.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온 식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했다. 특히 서로의 기

리에게 필요한 금액의 반이나 되었고 며칠 후에 또 다른 가정에서 남편 목사님의 설교레이프를 듣다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요. 자녀들과 식사 한번 하세요"하며 수표를 보냈다.

자녀들에게 2장의 수표를 보여주면서 합계를 내어 보라고 했다. 어린 자녀들은 받은 수표의 액수가 우리가 필요해서 기도한 액수와 똑같은 것에 놀라고 놀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금액을 응답해주셔서 자녀들도 하여금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셨다. 그 때 아이들은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더 큰 액수의 돈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걸!"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응답에 감격하며 좋은 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9) 사모의 눈물의 기도
 문제가 있는 아들의 침상 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사모의 뜨거운 눈물이 자식의 뺨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충격이 되어 그 아들을 변화시켰고 후에는 주의 종까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12)



이희숙 사모

민감해 한다. 교회 건축 시 필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전화통에 매달려 시정의 직원과 대화하는 것과 변호사와 대화하는 것들을 아들이 들곤 하였다. 그 후 아들이 대학원에서 공부할 하기 위해 다른 주로 이사 가서 집으로 전화할 때 필자의 목소리가 조금만 맑지 않아도 "엄마, 어디 아프세요?"하고 물어서 "아니, 괜찮다"하고 대답하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면서 광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 앞에서 표정이나 음성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였다.

5) '너는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라는 말은 절대 금물이다.

'너는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치러진 압박을 주변 안 된다. 자녀들이 처음에는 억지로 순종을 하거나 또는 순종을 하는 척한다. 그러나 그들이 부모 곁을 떠나 멀리 갔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거나 반항하는 경우가 많다.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안돼" 하는 것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안 통한다. 오히려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표준이나 가치를 가르치면서 설명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6) 목사의 자녀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인식시키고 금지 갖도록 하라

목사(선교사)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보람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

목사(선교사)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보람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자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희생에 대해 싫어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안 된다.

도제목을 내어놓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다보면 자녀들의 고민도 알게 된다. 또한 소원도 알게 될 뿐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을 나누며 자녀들의 믿음도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사모 단상

기도한 액수와 똑같은 수표 2장
 클리블랜드에서 휴스턴으로 사역지를 옮길 때 우리가 살던 집을 미처 팔지 못하고 옮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었다. 그때 필자는 자녀들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솔직히 그들에게 우리 형편을 설명해주면서 곧 내야할 청구서를 앞에도 놓고 자녀들에게 손을 얹으라고 한 후 하나님께 필요한 액수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동부에 있는 장로님 가정에서 수표를 보내왔다. 갑자기 목사님 가정이 생각보다 윤진이와 재민이와 잘 있는지 보고 싶다고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라도 하시라고 보낸 수표는 우

10) 가족 수양회를 갖도록 한다.
 목회자의 가정은 연휴가 길다 해도 목사님 아버지가 주일날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놀러가기 어렵다. 그러나 자녀들의 방학기간 동안에 반드시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시간을 내어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수양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필자의 남편 목사는 자녀들이 여름 방학을 하면 2-3주간의 '가족수양회'를 교회에 신청한다. 자녀들과 함께 '가족수양회'를 떠나 자녀들과의 시간을 가지며 여행을 다니곤 하였다. 지금은 둘 다 성인이 되었지만 자기들이 어려울 때 가족들과 함께 여행했던 즐거운 일들을 추억하면서 감사하게 여긴다. 자녀들은 금세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된다. 교인들은 아무리 잘해 주어도 사역지를 떠나면 결국은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고 만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와 평생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hslee39@sbcglobal.net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yahoo.com

월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삼하3:1-5)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됐지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까지는 또 다시 7년 반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어도 사울을 따랐던 그의 세력은 온 이스라엘에 잔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다윗의 집은 점점 더 영향력 있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시련과 문제와 계속 싸우면서 점점 더 강성해진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오랫동안 시련을 통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왕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시련을 통해 점점 더 강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리라(삼하3:6-12)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왕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사울왕가의 아브넬 장군입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데 잘될 때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싸움이 계속되는 사이에 군대장관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왕이 처음부터 믿고 키워준 장군입니다. 그러나 이 소보셋을 왕으로 세웠으면 끝까지 의리를 지

키고 은혜를 갚았어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휘어잡으며 못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생각할 것은 사람은 항상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되고 높은 지위를 가져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수 내가 너와 언약하리니(삼하3:12-20)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해져 나가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막강한 장군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요압이 아브넬에게 복수함으로써 정세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왕의

가족에 대한 변함없는 존경과 호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 항복하는데 언약을 맺으면서 그 조건이 미갈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장 위험할 때 다윗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월이 지났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습니다.

목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삼하3:21)

이스라엘을 빗댄 무화과나무 비유는 인자의 재림에 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재림의 징조를 말씀합니다(32-33). 역사상 구원역사의 최초로 사용된 이스라엘의 민족적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암시하지만 민족주의 의미로 치우침은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성령받아 증인되는 일에 더 초점을 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행1:7-8). 둘

째, 주의 말씀인 성경이 모두 성취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34-35).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사건이 일어남이 확실한 재림의 최종 증거입니다. 셋째, 아버지의 주권이 존중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36). 재림날짜를 둘러싼 이단이 온갖 유혹하는 때에 주권을 인정하는 신자만이 현혹되지 않고 경건한 충성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니라(삼하3:22-27)

오늘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또 한 사람 요압장군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도는 시기 질투하고 복수심을 품고 사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친신사절단과 함께 와서 잘 대접을 받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염탐꾼을 돌려보냈다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나라에 충성을 위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 동생을 죽인

복수를 하기 위해 죽였습니다. 다윗왕과 친선조약을 맺은 사람을 다윗왕의 허락도 없이 복수를 갚은 요압은 결국 다윗왕의 눈 밖에 날 뿐만 아니라 결국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복수심은 성도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마음입니다. 성도는 항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토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삼하3:27-30)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속의 왕이 된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인 요압이 아브넬을 은밀히 데려다가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은 또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치를 함으로써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악한 마음으로 저지른 일을 가차 없이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용

서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지만 악한 마음으로 저지른 죄는 그 자리에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다윗의 옆에서 오른 팔 노릇을 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6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340-1(131-231)</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오후예배: 오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강판구 목동2동 520 (116-80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50-99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04(270)</p>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 번지</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172, 291(갈매동) www.shincheon.org</p>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3:3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p>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3: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서울 용매동 제1가 146-7</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g.org</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북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인/터/뷰

ISF 국제학생회 임혜진, 노슬기 간사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다

사단법인 ISF(International Student Fellowship) 국제학생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가족, 교수들을 돕기 위해 지난 1997년 6월 서울대학교에서 이상일 목사를 주축으로 시작됐다.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와 윤영관 교수(서울대학교, 전 외교통상부장관)이 고문으로 손봉호 교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명예이사장으로 그리고 이태식 집사(전 주미대사)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숭실대, 이화여대, 한양대, 건국대, 경복대 등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기고 있다.

ISF를 섬기고 있는 임혜진 간사와 노슬기 간사가 최근 미국을 방문했다.

고려대학교 ISF를 섬기고 있는 임혜진 간사는 "ISF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단체입니다. ISF와 함께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인종과 국적 그리고 종교에 상관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임 간사는 "ISF는 한국어교실을 개설하고 1주일에 한차례 1시간30분간 모임을 갖고 있다"며 "유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방문을 하게 된 이유는 "글

로벌시대를 맞아 한국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졌다. 이들을 위한 사역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학생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위해 찾아왔다"며, "LA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ISF 북미지부를 방문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국 내 사역은 일단 유학생들에게 한국어교실이 있음을 알리고 찾아오게 한다. 그리고 찾아온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려주는 시간을 갖고 있다. 환영파티 때 ISF가 기독교단체라 소개하는데 기독교단체라는 이유로 ISF 참여를 중단하는 유학생은 아직 한 번도 없다. 한국어 교실은 교사 한명 당 학생 2명씩 10-12개 반으로 나눠 진행하며 정규모임은 1주일에 한차례지만, 교사와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ISF 임혜진 노슬기 간사

봄 학기 시작한 3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12월까지 모임을 갖게 된다. ISF 본부에서는 기업인턴십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며, ISF와 협력하는 교회들을 통해 무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파티, 추석맞이 체육대회, 추수감사 축제, 송년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다.

임 간사는 "일단 ISF가 한국 외교부에 등록된 단체라 학생들이 신뢰를 하는거 같아요. 또한 ISF에서 활동하는 교수님들이 수업시간에 기독교 이야기를 하시기에 학생들이 이곳에서 신앙으로 연결되기도 해요"라고 말했다.

ISF사역은 한국 내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주는 일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된다. 그리고 ISF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난 학생들이 한국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할 때 해당지역 교회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마치 한국에 있는 군복음화선교회처럼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병들이 전역 후 고향에 돌아갈 때 해당지역 교회들과 연결 시켜주는 것과 같다.

각 캠퍼스마다 ISF와 함께하는 유학생들의 특성은 다양하다. 고대의 경우 석박사들이 많으며, 연

연세대학교 ISF를 섬기고 있는 노슬기 간사는 "저희학교는 교환학생들이 많아서 정이 들만 하면 헤어지게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라고 운을 댄 뒤 "기억에 나는 학생은 미국 동부지방에서 온 교포 학생이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한국에 단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교환학생으로 신청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잘 몰랐어요. 한국일정을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ISF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 역시 사역에 열매가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돼 감사했습니다."

임혜진 간사는 학생들 중에는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수업시간에는 나타나는데 정작 담당교사와 수업 외적으로 교재를 하지 않아 담당교사가 자신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근심하게 하는 일도 있다고 언급했다.

ISF는 유학생들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학생들을 교회에 연결시켜주는 일과 함께 앞으로는 미국 등 ISF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예수를 만난 한국인 유학생들이 귀국하게 되면 그들의 신앙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사역도 준비 중에 있다.

노슬기 간사는 "선교는 결국 세상적인 세계관을 그리스도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ISF사역을 통해 많은 유학생들이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그리고 그 사역에 저희가 더 큰 쓰임을 받게 됐으면 합니다."

▲문의: isfkorea@empas.com (박준호 기자)

한국어교실 개설 생활어 교육... 인종, 국적, 종교 상관없이 교사 1명당 학생 2명, 1주일에 한차례 1시간 30분간 모임

모임을 더 갖는다.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학당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임 간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어학당은 교사 한명 당 학

생이 15-20명이 배정이 되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학원에서 배우는 것같이 격식을 갖춘 한국어를 배우는데, 저희 ISF에서는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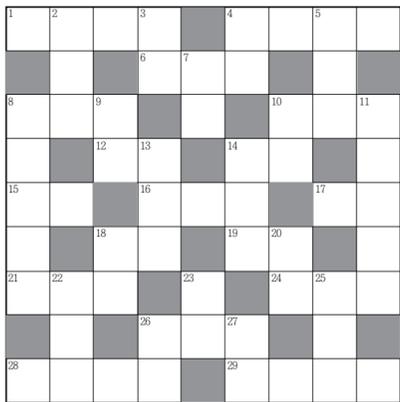
습득할 수 있게 되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샘 해밍턴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운다고 해야 할까요."

ISF는 학기별로 모임을 갖는다.

대의 경우 95%가 교환학생들이다. 또한 서울대, 연고대는 국적이 다양하지만 한양대는 100% 무슬림, 건대는 8-90%가 베트남학생으로 구성돼 있다.

십자말 • Cross Word (143)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1.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생활을 기록한 성경책.
4. 이라저러함(수7:20).
6. 상속받는 사람의 법률상의 호칭(창15:2).
8. 성벽 또는 성문을 파괴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둥 같은 큰 나무(겔4:2).
10.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겸한 사람들의 기록. 구약 7번째 책.
12. 줄여 작게 함(민6:10).
14. 허리가 아픈 병(사21:3).
15. 아브라함의 여종. 이스마엘의 생모(창16:15).
16.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암4:5).
17. 사체를 나르는 제구(삼하3:31).
18. 암몬족속에 속한 랍바사람 나하스의 아들(삼하17:27).
19. 생겨나는 물건(민35:3).
21. 히브리말 제물의 희랍음역.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 다른데 쓸 수 없다(막7:11).
24. 파수꾼이 아침을 ○○○보다 내 영혼이 주를 다.....(시130:6).
26.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아들이다(창46:12).
28.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긴 기념으로 사무엘이 세운 비석(삼상7:12).
29. 헤롯의 아들. 학정이 심해 과적됨(마2:22).

<세로 푸는 열쇠>

2. 매우 슬퍼하는 소리(약4:9).
3. 날씨가 대기 가운데서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의 현상(눅12:56).
4. 남자 말고...(창1:27).
5. 요담왕의 모친(왕하15:33).
7. 물질적으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죄, 과오 등을 씻는 일(출29:36).
8.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행18:13).
9. 움츠리고 물러 섬(사44:18).
10. 부부 아닌 남녀가 물레 정을 통함(겔16:32).
11. 기브온과 동맹한 도시 중의 하나요, 유다지파에게 준 땅(삿18:12).
13. 여름철에 갑자기 퍼붓는 큰 비(시72:6).
14. 제물을 흔들며 제사 지내는 제물(출29:27).
18. 음식을 놓고 먹는 상(마14:8).
20. 뱀 아이를 낳는 시기(삼상4:19).
22. 야곱의 장자며 레아의 소생(창29:32).
23. 칠일(삼상11:3).
25.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이곳에 이르러 약담으로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불로써 멸하신 후 이 이름을 주었다(민11:3).
26. 트루벤의 영지로서 레위 자손에게 양여한 성읍(대상7:37).
27. 히브리 곡식 되는 단위(왕하7:16).

십자말 정답

출	애	굽	기	여	차	여	차
공	성	되	상	속	자	사	기
경	축	소	요	통	맞		
하	갈	낙	현	제	상	여	
라	소	비	물	산	아		
고	르	반	이	기	다	림	
우	배	레	스	베			
애	벤	애	셀	아	겔	라	오

2016-2017년 APU 동문들을 위한 안내

일시 10월 10일(월) 오전 10시-오후 5시: 삼위일체론(강사: 전영호 박사)
장소 아주사퍼시픽대학교 LA센터(3580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 회비: \$30

일시 11월 14일(월) 오후 6시-9시: 중동 콕틱교회와의 만남
장소 St. Mary & St. Verena Coptic Orthodox Church(617 W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 | 회비: \$30

일시 12월 19일(월) 오후 6시: 2016 아주사 가족 송년모임(설교: 차광일 목사)
장소 APU West Campus Duke Academic Complex(701 E Foothill Blvd, Azusa, CA 91702)

일시 1월 23일(월) 오전 10시-오후 5시: 요한계시록(강사: 이상명 박사)
장소 아주사퍼시픽대학교 LA센터(3580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 회비: \$30

일시 3월 10일(월) 오전 10시-오후 5시: 사도행전 선교적 교회론(강사: 박명하 선교사)
장소 아주사퍼시픽대학교 LA센터(3580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 회비: \$30

강사양력



전영호 박사 미주리 캔사스시티 세인트폴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차광일 목사 한빛성결교회 담임
이상명 박사 미주장신대학교 총장
박명하 선교사 온두라스 선교사 전 KWMF공동회장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
APU Alumni Korean Chapter
대표 최장식 목사

문의: 최장식 목사(818)331-5478, 김사라 전도사 (310)988-0099